

# I . 2006학년도 입시의 특징 분석

## 이 범

現 와이즈멘토(주) 이사 ([www.WiseMentor.net](http://www.WiseMentor.net))

現 프리에듀넷(주) 대표이사 ([www.FreeEdu.net](http://www.FreeEdu.net))

現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과학탐구 강사

- 2004년 EBS 및 강남구청 인터넷강의 초빙
  - 2003년 말 학원가 은퇴 및 메가스터디 사퇴, 전면 무료강의 선언
  - 1998~2002 논술특강 강의
  - 통합과학의 창시자(고3과학 전 과목 1인 강의)
  - 5년간 대한민국 과학탐구 최다수강생 기록
- 前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강사 겸 기획이사



## 1. 수시/정시 전형요소별 분석(2006학년도 기준)

	수 시	정 시
기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학기수시 7~8월, 2학기수시 9~11월</li> <li>무한 복수지원 · 복수합격 가능</li> <li>일반전형/특별전형으로 구분. 특별전형은 특기자전형, 국제화전형, 리더십전형 등 다양하나 정원은 대체로 소수.</li> <li>한곳이라도 합격하면 정시 지원자격 박탈되므로 주의해야 함</li> <li>고려대 등은 수시 대학별고사를 수능 직후에 치르므로 지원전략에 참조할 필요</li> <li>전체 정원의 40% 이상이 수시에 배정되어 있으나, 실제 선발인원은 수시 복수합격자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자로 인해 30%대로 봐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2월</li> <li>수능성적이 반영되므로 수능점수 발표(12월중순) 이후에 전형이 이뤄짐(참고로 올해 수능은 APEC 정상회담으로 인해 11월 23일로 늦춰짐. 수능성적통지는 12월 19일)</li> <li>가군/나군/다군에 각각 한곳씩, 총3곳 복수지원 가능.</li> <li>한 대학이 2개 이상의 군에 분할모집하는 경우(한양대 등)가 있으니 지원전략에 참조할 필요.</li> <li>의·치·한의학 계열은 전체 정원의 80% 이상이 정시에 배정되어 있음</li> </ul>
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도 大.</li> <li>대체로 상대평가요소(과목별 석차백분율) 반영. 1단계 서류전형에서 탈락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 2단계에서는 대학별고사에 비해 변별력이 작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도 小.</li> <li>대부분 절대평가요소(평가: 수우미양가) 반영. 서울대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요소(과목별 석차백분율)를 반영하므로 특목고생에게 매우 불리함.</li> </ul>
수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도 小.</li> <li>합격자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 최저기준으로 요구하는 등급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합격하는 경우 매우 많음.</li> <li>정원 중 일부는 수능성적과 무관하게 바로 합격자로 확정하기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도 大.</li> <li>정시에서 가장 중요. 성적표에 과목별 표준점수 및 등급 표기. (총점 및 총점 등급은 2005학년도부터 없어짐.)</li> <li>주요 대학은 대체로 국영수+사탐/과탐 반영</li> </ul>
대학별 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도 大.</li> <li>문과는 일반논술(언어논술), 심층면접. 일반논술 지문 중 절반 가량을 영어 지문으로 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음.</li> <li>이과는 일반논술은 거의 없고 수리논술(고려대 등), 심층면접(서울대 등) 등.</li> <li>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등 4개 대학은 .문이과 공통으로 적성검사(언어능력, 사고력, 공간지각능력 객관식 테스트)</li> <li>고려대는 문·이과 모두 일반논술+수리논술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도 小.</li> <li>문과는 주로 일반논술. 이과는 대학별고사 거의 없으나, 심층면접을 치르는 경우도 있음(서울대 등).</li> <li>대학별고사의 변별력은 대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서울대 등의 경우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편임.</li> <li>서울대 정시의 심층면접 난이도는 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정도인 반면, 수시의 심층면접 난이도는 2005학년도부터 극단적으로 높아짐.</li> </ul>

※ 위 전형과 별도로 중복지원 가능한 대학 :

KAIST(1차모집 8월, 2차모집 12월), 경찰대(8월~), 사관학교(8월~) 등. 교육부 산하의 일반대학이 아니므로 위 수시/정시 모집과 무관하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KAIST는 TOEIC 점수를 요구하는 등 대학별로 전형방식이 독특하므로 각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대비할 것.

## 2. 대학입시 일정(2006학년도)

모집시기구분		기 간	합 격 자 발 표	등 록 기 간	비 고
수시	1학기	<원서접수> 2005.7.13(수)~7.22(금) (10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05.7.23(토)~8.31(수) (40일)		2005.9.5(월) ~9.6(화) (2일)	학생부기준일 교과: 2005.2.28(월) 비교과: 2005.6.30(목)
	2학기	<원서접수 및 전형> 2005.9.10(토) ~12.13(화)(95일)	2005.12.18.(일)까지	2005.12.19(월) ~12.20(화) (2일)	학생부기준일 : 2005.8.31(수)
	원서 접수	2005.12.22.(목) ~ 27.(화) (6일간)			
정시	“가”군	<전형기간> 2005.12.28(수) ~2006.1.11(수)(15일)	• 최초합격자 발표 : 2006.2.2(목)까지  • 미등록 충원 합격 : 2006.2.16(목)까지	• 정시등록기간: 2006.2.3.(금) ~ 2.6.(월)(2일)  • 미등록충원 등록: 2006.2.16.(목)까지	학생부기준일 : 2005.12.10.(토)
	“나”군	2006.1.12(목) ~1.22(일)(11일)			
	“다”군	2006.1.23(월) ~2.2(목)(11일)			
추가모집	2006.2.18(토)~28.(화) (11일)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을 대학 자율 결정.시행				

## Ⅱ.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 대학별 고사 분석

김찬휘

現 데일리 잉글리쉬 ERS 어학원(대치동 소재) 원장

現 (주) ERS 에듀 대표이사

現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외국어영역 대표강사

現 티치미(<http://www.TeachMe.co.kr>) 영어 대표강사

現 DailyEnglish.com 콘텐츠 디렉터



## 1. 서울대학교(2006년)

	수 시 - 지역균형선발 (2학기)	수시 - 특기자 (2학기)	정 시
특징	* 입학정원의 20.5% 내외 (659명) 고3만 지원 가능 * 최저학력기준 :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입학정원의 13.2% 내외 (426명)	* 입학정원의 66.3% 내외 (2140명) * 최저학력기준 :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전형	<1단계전형> 학생부 100% 반영 모집 인원의 2-3배수 선발  <2단계전형> 1단계성적 + 서류평가 + 면접구술	<1, 2 단계별 전형> 인문계열 = 서류평가 + 면접구술 자연계열 = 서류평가 + 면접구술 + 논술	<1단계전형> 학생부 + 수능 모집 인원의 2배수 선발  <2단계전형> 인문계열 = 1단계 성적 + 논술 + 면접구술 자연계열 = 1단계 성적 + 면접구술

### ▶ Summary

1. 면접구술이 기본요소이다. 모든 전형에 구술이 있다.
2. 논술은 정시 인문계열에 있다.
3. 수시 특기자 전형에서 자연계열에 논술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 2. 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 (2006년)

	수 시 - 1학기	수시 - 2학기	정 시
특징	* 정원의 10% 내외 (395명)	* 정원의 34% 내외 (1356명) * 최저학력기준 :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정원의 56% 내외 (2208명) *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	* 인문 : 학생부 25% + 서류 5% + 논술 70% * 자연 : 학생부 25% + 서류 5% + 논술 70%  * 다단계 전형 없음		* 인문계 : 수능 50% + 학생부 40% + 논술 10% * 자연계 : 수능 55.6% + 학생부 44.4%

### ▶ Summary

1. 수시는 논술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당락을 결정한다.
2. 2005년도 입시에서 수시 논술은, 언어논술과 수리논술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수시건 정시건 구술시험은 없다.
4. 자연계는 정시에 논술이 없다.



### 3. 연세대학교(2006년)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특징	지원자격 : 인문계 3학년 재학생	* 지원자격 : 인문계 3학년 + 인문계 졸업 후 2년 이내 * 최저학력기준 : 인문계 :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 : 수리(가), 과탐 모두 2등급 이내 의예. 치의예 :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3개 영역 이상 1등급 이내	지원자격 제한 없음
전형	교과성적(70%) + 서류(15%) + 면접구술(15%)		*인문 : 정원의 50% = 학생부(49.5%) + 수능(49.5%) + 제2외국어/한문 나머지 50% 모집인원 : 학생부 47.5% + 수능 47.5% +제2외국어/한문 1% + 논술 4% * 사회 : 정원의 50% = 학생부 50% + 수능 50% 나머지 50% 모집인원 : 학생부 48% + 수능 48% + 논술 4% *자연 : 학생부(50%) + 수능(50%)

#### ▶ Summary

1. 수시에 논술이 없다. 면접 구술만 본다.
2. 정시에서 자연계는 논술도 구술도 없고, 인문계 일부에 논술이 있으나 비중이 적다. 결국 정시에서 수능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 4. 한양대학교(서울-안산캠퍼스 통합) (2006년)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1		수시 2학기 2		정시
특징	① 21세기한양인 I ② 세계화	547명 (10.0%)	① 21세기한양인 II ② 한양 2010(신설) ③ 재능우수자 ④ 사회적배려대상자	1,027명 (18.8%)	① 지역학생 ② 사랑의 실천 ③ 특정 전공우수자	611명 (11.2%)	모집인원 3,285명 (60.1%)
	2,185 (39.9%)						
전형	<p>● 21세기 한양인 I-II 지원자격 : 학생부반영교과 중 2개교과(서울캠퍼스)의 석차백분위 성적이 각각 상위 25% 이내인 자로서 2005년 2월 고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고교졸업 예정자 (※ 의예과는 전체 반영교과 평균석차백분위 상위15% 이내) &lt;1단계전형&gt; 학생부 50% + 전공적성검사 50% 모집인원의 22.5배수 선발 &lt;2단계전형&gt; 학생부(30%) + 전공적성검사(30%) + 면접구술 및 논술(구술) (40%) (인문계 논술, 자연계 심층면접)</p>						<p>● '가' 군 서울캠퍼스 &lt;1단계전형&gt; 인문 : 수능100% 자연 : 수능100% &lt;2단계전형&gt; 인문/공과대,건축대 : 수능 55% + 학생부 40% + 논술 5% 자연 : 수능 60% + 학생부 40% ● '나' 군/ '다' 군 서울캠퍼스 수능 100%</p>

#### ▶ Summary

1. 수시에서 '전공적성검사'라는 이름 아래 일종의 본고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2. 수시에서 전공적성검사, 구술 및 논술이 당락을 결정한다.
3. 정시는 전형이 다양하나, 수능을 중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시 '가'군 전형, 그것도 특정 인기 학부에만 논술을 반영한다.

## 5. 서강대학교(2006년)

	수시 1	수시 2	정시
특징	10% 고3 재학생만 지원 가능 특기자전형 없음	46% 2005년 이전 졸업자 지원 가능(단, 학교장추천특별전형의 경우 2005년 졸업자까지 해당)	44%
전형	1단계 : 논술 40% + 학생부 60% 2단계 : 1단계 성적 80% + 전공구술면접 20%	1단계 : 논술 40% + 학생부 60% 2단계 : 1단계 성적 80% + 전공구술면접 20%	*인문사회계열 : 1유형(20% 선발) : 수능 100% 2유형(80% 선발) : 학생부50% + 수능40% + 논술10% *자연과학. 공학계열의 경우 1유형(20% 선발) : 수능점수 100% 2유형(80% 선발) : 학생부50% + 수능50%



### ▶ Summary

1. 수시 전형의 각 단계에서 논술 및 구술면접을 순차적으로 모두 실시한다.
2. 수시의 모집 비율이 50%를 넘었다.
3. 정시에서는 자연계열에 논술이 없으며, 인문계열도 일부 전형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 6. 중앙대학교(2006년)

	수 시 - 1학기	수시 - 2학기	정 시
특징	지원자격 : 수시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만 지원가능 의학부 약학부 - 최저학력기준 반영		
전형	<1단계 전형> 학생부(100%)  <2단계 전형> 논술(70%) + 면접구술 (30%)		인문/자연 : 학생부(27%) + 수능(70%) +논술(3%)



### ▶ Summary

1. 수시는 논술과 구술 반영 비율이 2단계에서 100%이다.
2. 정시는 논술을 반영한다.

## 7. 성균관대학교(2006년)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
특징	정원의 10% 자격기준 : 2006년 2월 졸업예정자(조기졸업포함) 및 2005년 2월 졸업자	정원의 35%	정원의 55%
전형	1단계 전형 : 학생부60% + 자기평가서10% 2단계 전형 : 1단계 성적70% + 면접30%	일반전형 : 학생부 60% + 자기평가서 및 전공적성평가 40%  학업우수자 : 1단계전형-학생부 60% + 자기평가서 10% 2단계전형-1단계 성적 70% + 면접 30%  ※ 전공적성평가는 외국대학 벤치마킹 후 최종 통보 예정,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기평가서 전형(논술형) 실시 예정	* 인문계 1단계 전형 : 수능 100% 2단계 전형 : 학생부 40% + 수능 57% + 논술 3% (1단계 무시험 전형만으로 50%를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1-2단계 다단계 전형으로 선발함)  * 자연계 일괄전형 : 학생부 40% + 수능 60%

### ▶ Summary

1. 수시 모집(2학기)에서 전공적성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2. 독특한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즉 전형 과정에서 두 번의 기회가 있다.
3. 정시 자연계는 논술 및 구술이 없고, 정시 인문계가 논술을 2단계에서 반영한다.

## 8. 경희대학교(2006년)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
특징	전체 정원의 6% 모집 전형유형 : 교과우수자(I) 영예학생 사회공헌·배려대상자 등	전체 정원의 31% 모집 교과우수자(II) 교사추천 특정과목우수자 경기지역학생 바른생활·모범학생 등	정원의 63% 모집
전형	교과우수자 (I) 서울 : 학생부40% + 인·적성40% + 논술 20% 수원 : 학생부40% + 인·적성40% + 면접 20%	교과우수자 (II) 서울 : 학생부40% + 인·적성40% + 논술 20% 수원 : 학생부70% + 인·적성30%	인문 : 학생부 30% + 수능 67% + 논술 3% 자연 : 학생부 30% + 수능 70%



### ▶ Summary

1. 경희대(서울)는 수시, 정시 모두 논술 시험을 치른다.
2. 수시의 경우 인, 적성 시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Ⅲ. 수시 1/2학기 전형 지원 전략



박재원

現 일교시닷컴 학습과학연구소 소장

現 일교시 논구술팀 대표

現 조동기국어논술전문학원 상담소장

現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학습법 특강 강사

前 Ivy School Study clinic 소장

前 한국학습과학연구소 소장

-고 3때부터 학습법 교정 중심의 학생 지도 시작

-공주 한일고등학교 등 학생 대상 학습법 특강 다수 진행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특강 다수 진행





## 지원 전략 1단계 : 3번의 기회를 모두 살려라!

Memo

자료 : 2006학년도 모집시기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대학수	총 모집인원(%)	일반전형인원	특별전형인원
수시 1학기	112	26,849 (7)	8,234	18,615
수시 2학기	183	161,364 (41)	54,543	106,821
정시	201	201,371 (52)	181,160	20,211
합계(%)	201	389,584 (100)	243,937 (63)	145,647 (37)

자료 :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일정

모집시기	원서접수	전형 및 발표	비고
수시 1학기	2005.7.13(수) ~7.22(금)	2005.7.23(토) ~ 8.31(수)	
수시 2학기	2005. 9.10(토) ~ 12.13(화)		
정시(가, 나, 다)	2005. 12.22(목)~2006. 2. 2(목)		

## 지원 전략 2단계 : 특별전형을 노려라!

Memo

자료 : 200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전형유형	세부유형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		합계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일반전형	일반학생	56	8,234	118	54,543	201	181,160	375	243,937
특별전형	정원내외 모두 포함		18,615 (69.3%)		106,821 (66.2%)		20,211 (10.0%)		
합계			26,849		161,364		201,371		

자료 : 주요 대학 특별 전형의 종류와 지원 자격

구분		지원자격
서울대	수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문계열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 문학, 외국어에 특기와 재능이 있는 자</li> <li>○ 국제 및 국내 올림피아드 수상자</li> <li>○ 봉사, 사회활동 실적이 탁월한 자</li> <li>○ 모집단위 학문분야의 특기와 재능을 지닌 자</li> </ul> </li> <li>▶자연계열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올림피아드참가자, 국내 올림피아드 입상자, 지원 자격 유예 인정 경시대회 입상자</li> <li>○ 석차백분율30% 이내인 수학 또는 과학교과가 20단위 이상인자(졸업예정자에 한함)</li> <li>○ 수학 또는 과학 교과 평균석차 백분율이 5% 이내인자(졸업예정자에 한함)</li> </ul> </li> </ul>
고려대	수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li> <li>- 사회 각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한 자.</li> <li>- 지원할 모집단위가 인정하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li> <li>- 모집단위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입상자</li> </ul> </li> <li>○지역인재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지역(읍·면포함) 소재 고교에서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li> <li>○국제화 : 국내외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영어강의 수강 가능한자.</li> <li>○과학영재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 또는 과학교과 과목의 평균 석차 상위 20% 이내</li> <li>- 모집단위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입상자</li> </ul> </li> </ul>
	수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인재 : 국내외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영어강의 수강 가능한자.</li> <li>○사회봉사활동 우수인재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실적이 탁월하여 수상 또는 표창을 받은 자</li> <li>- 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활동으로 표창을 받은 자</li> <li>- 고교재학 중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또는 특별활동반의 회장으로 1학기 이상 활동한 자</li> </ul> </li> <li>○특수재능보유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항 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가 정하는 주요 문학상 수상자 또는 신춘문에 입상자</li> <li>-모집단위 해당분야의 국제 대회 수상 경력자</li> <li>-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li> <li>-모집단위가 인정하는 해당분야에서 작품발표 또는 출판 실적이 있는 자</li> </ul> </li> </ul>
연세대	수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기졸업자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 정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2006년 2월 조기졸업 예정자(실업계, 검정고시 및 해외고 출신자 제외)</li> <li>(2) 위 (1)의 자격에 해당하며 2학년 1학기까지 수학과 과학 교과의 총 이수단위가 43단위 이상인 자</li> </ul> </li> <li>○글로벌 리더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실업계 및 검정고시 제외)</li> <li>(2) 위 (1)의 자격에 해당하며 외국어 또는 외국어에 관한 교과를 58단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입학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외국어 공인성적(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언어)을 제출할 수 있는 자</li> </ul> </li> <li>○특기자 및 특수재능보유자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li> <li>(2) 2003년 4월 1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li> <li>(3) 위 (1), (2)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입학 이후 전국 규모 경시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특수재능보유자</li> </ul> </li> </ul>

자료 : 특별전형 일람표(2005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정원별	전형유형	세부유형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		합계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정원내	특기자 특별전형	문학	2	16	39	221	1	10	42	247
		어학	4	53	54	908	4	65	62	1,026
		한문			7	53			7	53
		논리논술			2	13			2	13
		수학/과학	1	20	15	124	1	16	17	160
		전기전자			1	6			1	6
		건축			5	13			5	13
		지리			1	2			1	2
		농업			3	47			3	47
		음악	1	5	15	176	2	9	18	190
		미술	2	9	30	399	2	17	34	425
		무용			21	208	2	12	23	220
		체육	2	28	82	2,341	18	288	102	2,657
		방송연예			10	38			10	38
		예능			4	150			4	150
		연극영화	1	2	6	22			7	24
		디자인			7	75	1	4	8	79
		컴퓨터정보화	1	19	27	307			28	326
		발명			4	19			4	19
		로봇			1	1			1	1
		게임			2	8			2	8
		기능			8	94			8	94
		만화			1	4			1	4
		의상			1	2			1	2
		원예			1	2			1	2
		산업공예			3	17			3	17
		식품조리			5	21			5	21
		영상	1	3	5	29			6	32
		사진			2	10			2	10
		바둑			2	7			2	7
		수상경력	2	18	7	76			9	94
		서예			1	2			1	2
		선반용접			1	3			1	3
리더십			1	6			1	6		
사회복지			1	5			1	5		
자격증			1	7			1	7		
성적우수자			1	114			1	114		
복합유형			18	862	2	17	20	879		
소 계			173		6,392		438		7,003	

강남구청 인턴넷 수능방송국

정원별	전형유형	세부유형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		합계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정원외	대학별 독자적 기준	국가유공자 및 자손	7	47	76	1,282	25	222	108	1,551	
		사회봉사자 및 자녀	3	38	33	913	6	39	42	990	
		선·효행자	1	8	20	764	6	22	27	794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자녀	10	242	56	1,810	13	205	79	2,257	
		학교장, 교사추천자	39	4,834	103	27,099	25	1,521	167	33,454	
		기타 추천자	9	313	45	3,769	19	399	73	4,481	
		기능우수자	15	311	59	3,236	10	346	84	3,893	
		교과성적(내신) 우수자	9	2,009	30	14,480	4	342	43	16,831	
		특정전공 우수자	2	285	29	3,331			31	3,616	
		수능성적 우수자			70	1,992	15	1,316	85	3,308	
		어학 우수자	6	275	22	1,337	2	15	30	1,627	
		조기 졸업자	1	6	2	212			3	218	
		학생회 임원, 리더쉽	8	414	19	1,160	1	2	28	1,576	
		개근자			1	72	1	3	2	75	
		각종 대회 입상자	4	87	10	200	4	66	18	353	
		수상자			7	654	1	2	8	656	
		기관장 표창자			2	37			2	37	
		정원내	대학별 독자적 기준	해외 유학생	1	70	3	66			4
대학과정 수료 졸업자					2	4	4	65	6	69	
고령자만학도전업주부	9			143	47	968	23	349	79	1,460	
특별전형	간호와 남자				2	8			2	8	
	검정고시 출신자		1	1	9	130			10	131	
	대안학교 출신자				7	45	2	7	9	52	
	지역고교 출신자		13	626	61	6,391	10	994	84	8,011	
	가업 계승자				8	150	1	5	9	155	
	공무원·교직원자녀		1	6	18	574	2	14	21	594	
	종교인·자녀				14	265	11	130	25	395	
	항공종사자자녀		1	13					1	13	
	동일직종 종사자자녀		1	23	6	40			7	63	
	선원 자녀				2	30	1	10	3	40	
	인문계 고교 출신자		4	397	5	2,528			9	2,925	
	소계			10,148		73,547		6,074		89,769	
	특별전형		취업자	6	384	37	1,268	27	728	70	2,380
			산업대학 우선선발	1	36	10	3,866	13	2,083	24	5,985
			특성화 고교	29	2,326	50	7,318	11	905	90	10,549
소계			2,746		12,452		3,716		18,914		
정원의외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41	2,639	73	4,889	113	5,826	227	13,354	
		실업계고교 출신자	47	2,580	70	4,044	72	3,007	189	9,631	
		재외국민과 외국인	8	220	113	4,752	46	697	167	5,669	
		특수교육 대상자	6	109	27	745	34	453	67	1,307	
		소계		5,548		14,430		9,983		29,961	
합	계	112	26,849	183	161,364	201	201,371	201	389,584		

## 지원전략 3단계 : 나의 강점을 살려줄 대학을 찾아라!

판단기준 1. 수시 전형요소별 실질 영향력 분석

	학생부					서류				수능				논술			구술면접			적성 검사	유사 군
	교과1	교과2	비교교과1	비교교과2	기타	자기소 개서	학업계 획서	추천 서	기타	언어	외국 어	수리	사탐 / 과탐	자기 계발	준비 정도	기타	자기 계발	준비 정도	기타		
	국,영, 수,사(과)	기타	자격증 수상실 적	봉사활동 등																	
고대형	강	약	약			중				강	강	강	중	강	강		약	약		무	
연대형	강	중	강			강				중	중	중	중	중	중		강	강		무	
현대형	강	약	약			약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나는?																					

판단기준 2. 수시 일반 전형 절차별 구분

구분	대학 분류	대학별 고사 준비 정도	
일괄합산 전형	고려대/경희대	강	
다단계 전형	1단계 대학별 고사 실시	서강대/이화여대/한양대	중
	1단계 대학별 고사 미실시	연세대/숙명여대/서울대	약

자료 : 내신/논술/구술면접 반영비율

1. 「수시 1학기」 (일반전형/인문계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분포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분포

구분	100%	8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국공립대	군산대, 순천대, 여수대 <3개교>	진주산업대 <1개교>		전북대 <1개교>			
사립대	가야대, 경남대, 경일대, 경주대, 고신대, 관동대, 광주대, 극동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전대, 동양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서원대, 세종대, 순천향대, 아시아대, 위덕대, 초당대, 탐라대, 한려대, 호남대 <26개교>	경운대, 고려대(조치원), 광주여대, 남부대, 동국대(경주), 상지대, 우송대, 한림대 <8개교>	동국대(서울), 명지대, 선문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에원예술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라대 <8개교>	부산장신대, 서울여대, 영남신학대 <3개교>	숙명여대, 이화여대, 칼빈대 <3개교>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2개교>	고려대(서울), 아주대 <2개교>
합계	<29개교>	<9개교>	<8개교>	<4개교>	<3개교>	<2개교>	<2개교>

**강남구청 인턴넷 수능방송국**

나. 면접구술고사 반영비율 분포

구분	20% 이상	10% 이상	5% 이상	5% 미만
국공립대	전북대<1개교>	진주산업대<1개교>		
사립대	광주여대, 남부대, 명지대, 부산장신대, 상지대, 서울여대, 전문대, 숙명여대, 아주대, 영남신학대, 영동대, 에원예술대, 우송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칼빈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라대, 한림대<19개교>	경운대, 동국대(경주),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4개교>		

다. 논술고사 반영비율 분포

구분	20% 이상	10% 이상	5% 이상	5% 미만
국공립대	전북대<1개교>			
사립대	고려대(서울), 동국대(서울),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8개교>			

2. 「수시 1학기」 (일반전형/자연계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분포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분포

구분	100%	8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국공립대	군산대, 순천대, 여수대<3개교>	진주산업대<1개교>		전북대<1개교>			
사립대	가야대, 경남대, 경일대, 경주대, 고신대, 관동대, 광주대, 극동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전대, 동양대, 목원대, 서남대, 서원대, 세종대, 순천향대, 신경대, 아시아대, 위덕대, 호남대, 초당대, 한려대<27개교>	경운대, 고려대(서울), 동국대(경주), 상지대, 우송대, 한림대<6개교>	광주여대, 동국대(서울), 명지대, 전문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한라대, 한국산업기술대<8개교>	서울여대<1개교>	숙명여대, 이화여대<2개교>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2개교>	고려대(서울), 아주대<2개교>

나. 면접구술고사 반영비율 분포

구분	20%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국공립대	인천대, 전북대, 충남대<3개교>	진주산업대<1개교>		
사립대	광주여대, 명지대, 상지대, 서울여대, 전문대, 숙명여대, 아주대, 영동대, 우송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한국산업기술대, 한라대, 한림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16개교>	경운대, 동국대(경주),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4개교>		

다. 논술고사 반영비율 분포

구분	20%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국공립대	전북대<1개교>			
사립대	동국대(서울),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5개교>			

자료 : 주요 대학 전형 요소별 반영 여부(※각 대학별로 세부 전형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명	모집시기	학생부						수능시험				면접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	추천서, 자기 소개서등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고1)			선택 중심 교육과정(고2,3)			언어	수리	외국어	제2외국어 · 한문		
		전교과	일부교과	비교과	전교과	일부교과	비교과						
동국대	수시 1	●			●							●	●
	수시 2	●			●			●		●		●	●
	정시	●		●	●			●	●	●		●	
부산대	수시 1												
	수시 2	●		●		●	●	●		●		●	
	정시	●		●		●	●	●	●	●	●	●	
상명대	수시 1												
	수시 2	●		●	●		●			●		●	
	정시	●		●	●		●	●	●	●		●	
서강대	수시 1		●	●		●	●	●		●		●	
	수시 2		●	●		●	●	●		●		●	
	정시		●	●		●	●	●	●	●	●	●	
서울대	수시 1												
	수시 2		●	●		●	●	●		●		●	●
	정시	●		●	●		●	●	●	●	●	●	●
서울시립대	수시 1												
	수시 2		●	●		●	●	●		●		●	●
	정시		●	●	●	●	●	●	●	●		●	●
성균관대	수시 1		●	●		●	●	●		●		●	●
	수시 2		●	●		●	●	●		●		●	●
	정시		●	●		●	●	●	●	●	●	●	●
성신여대	수시 1												
	수시 2		●	●		●	●	●		●		●	
	정시		●	●		●	●	●	●	●	●	●	
세종대	수시 1		●	●		●	●	●		●		●	
	수시 2		●	●		●	●	●		●		●	
	정시		●	●		●	●	●	●	●	●	●	
숙명여대	수시 1	●		●		●	●	●		●		●	●
	수시 2	●		●		●	●	●		●		●	●
	정시			●		●	●	●	●	●	●	●	●
송실대	수시 1												
	수시 2	●		●		●	●	●		●		●	●
	정시	●		●		●	●	●	●	●	●	●	
아주대	수시 1		●	●		●	●					●	●
	수시 2		●	●		●	●					●	●
	정시		●	●		●	●	●	●	●		●	
연세대	수시 1	●		●	●		●					●	●
	수시 2	●		●	●		●			●		●	●
	정시	●		●	●		●	●	●	●	●	●	●
이화여대	수시 1					●						●	●
	수시 2		●			●		●		●		●	●
	정시		●	●		●	●	●	●	●	●	●	
인천대	수시 1												
	수시 2	●				●						●	
	정시	●		●		●	●	●	●	●	●	●	
인하대	수시 1		●	●		●	●	●		●		●	●
	수시 2		●	●		●	●	●		●		●	●
	정시		●			●		●	●	●		●	
전남대	수시 1												
	수시 2		●	●		●	●	●		●		●	●
	정시		●	●		●	●	●	●	●		●	
전북대	수시 1												
	수시 2	●		●		●	●	●		●		●	
	정시	●		●		●	●	●	●	●	●	●	

대학명	모집시기	학생부						수능시험				면접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	추천서, 자기 소개서등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고1)			선택 중심 교육과정(고2,3)			언어	수리	외국어	제2외국어 · 한문		
		전교과	일부교과	비교과	전교과	일부교과	비교과						
제주대	수시 1												
	수시 2	●			●								
	정시	●		●	●		●	●	●			●	
중앙대	수시 1	●				●				●		●	
	수시 2	●				●						●	
	정시	●				●		●	●	●	●		
충남대	수시 1												
	수시 2	●		●		●	●	●		●		●	●
	정시	●		●		●	●	●	●	●	●	●	
충북대	수시 1												
	수시 2		●			●		●		●		●	●
	정시		●	●		●	●	●	●	●		●	●
포항공대	수시 1												
	수시 2		●	●		●	●					●	●
	정시		●	●		●	●	●	●	●		●	●
한국외대	수시 1		●			●						●	●
	수시 2		●			●		●		●		●	●
	정시		●	●		●	●	●	●	●		●	
한국정보 통신대	수시 1												
	수시 2											●	●
	정시		●			●		●	●	●		●	
한양대	수시 1		●			●						●	
	수시 2		●			●		●		●		●	
	정시		●			●		●	●	●	●	●	
홍익대	수시 1		●	●		●	●					●	
	수시 2		●	●		●	●	●		●		●	
	정시		●	●		●	●	●	●	●		●	



# 지원전략 4단계 - 가능성 있는 선택에 집중해라!

자료 : 고려대 2005학년도 지원 현황(서울 캠퍼스, 일반전형)

대학	1학기				2학기				정시			비교									
	모집단위	정원	지원자	경쟁률	모집단위	정원	지원자	경쟁률	정원	지원자	경쟁률	경쟁률			정원			2006(정원)			
												1학기	2학기	정시	1학기	2학기	정시	1학기	2학기	정시	
법과대학	법과대학	29	891	30.72	법과대학	87	1,775	20.40	173	723	4.18	30.72	20.40	4.18	29	87	173				
경영대학	경영대학	38	977	25.71	경영대학	114	2,341	20.54	231	649	2.81	25.71	20.54	2.81	38	114	231				
문과대학	인문학부	34	836	24.59	국어국문학과	13	271	20.85	213	883	4.15	24.59	16.77	4.15	34	95	213				
					철학과	19	210	11.05													
					한국사학과	5	72	14.40													
					사학과	23	380	16.52													
					심리학과	10	242	24.20													
					사회학과	15	312	20.80													
					한문학과	10	107	10.70													
	국제어문학부	42	770	18.33	영어영문학과	10	250	25.00	247	864	3.50	18.33	12.56	3.50	42	135	247				
					독어독문학과	24	259	10.79													
					불어불문학과	24	262	10.92													
					중어중문학과	5	102	20.40													
					노어노문학과	24	252	10.50													
					일어일문학과	5	89	17.80													
					서어서문학과	24	270	11.25													
언어학과	19	212	11.16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환경과학대학	23	284	12.35	생명유전공학부	14	329	23.50	147	1,068	7.27	12.35	23.50	7.27	23	14	147				
	식품자원경제학과	5	94	18.80	생명산업과학부	22	269	12.23	38	352	9.26	18.80	12.29	9.26	5	72	38				
					식품과학부	11	126	11.45													
					환경생태공학부	22	256	11.64													
정경대학	정경대학	34	912	26.82	정경대학	73	1,828	25.04	208	689	3.31	26.82	22.18	3.31	34	104	208				
	통계학과	31	479	15.45																	
이과대학	이과대학	16	342	21.38	수학과	13	324	24.92	98	412	4.20	21.38	18.29	4.20	16	48	98				
					물리학과	14	152	10.86													
					화학과	11	289	26.27													
					지구환경과학과	10	113	11.30													
공과대학	재료·화학생명공학부	23	359	15.61	재료공학부	44	582	13.23	140	941	6.72	15.61	13.23	6.72	23	44	140				
	건축·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14	208	14.86	화학생명공학과	27	648	24.00	91	412	4.53	14.86	24.00	4.53	14	27	91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23	269	11.70													
	전기전자공학부	20	243	12.15	건축공학과	21	404	19.24	99	445	4.49	15.06	15.75	4.49	17	230	99				
					기계공학과	44	556	12.64													
					산업시스템공학과	18	246	13.67													
					전기공학과	27	332	12.30													
전자공학과	26	586	22.54																		
의과대학	의과대학	10	839	83.90	의과대학	31	1,812	58.45	62	203	3.27	83.90	58.45	3.27	10	31	62				
	교육학과	5	116	23.20	교육학과	15	273	18.20	29	115	3.97	23.20	18.20	3.97	5	15	29				
	국어교육과	4	174	43.50	국어교육과	14	346	24.71	29	66	2.28	43.50	24.71	2.28	4	14	29				
	영어교육과	6	168	28.00	영어교육과	18	389	21.61	36	97	2.69	28.00	21.61	2.69	6	18	36				
	지리교육과	4	117	29.25	지리교육과	12	250	20.83	24	100	4.17	29.25	20.83	4.17	4	12	24				
	역사교육과	3	99	33.00	역사교육과	9	207	23.00	18	62	3.44	33.00	23.00	3.44	3	9	18				
	가정교육과	4	56	14.00	가정교육과	12	139	11.58	24	129	5.38	14.00	11.58	5.38	4	12	24				
	수학교육과	4	235	58.75	수학교육과	12	589	49.08	23	81	3.52	58.75	49.08	3.52	4	12	23				
	컴퓨터교육과	3	43	14.33	컴퓨터교육과	9	101	11.22	19	80	4.21	14.33	11.22	4.21	3	9	19				
체육교육과	-	-	-	-	-	-	-	38	193	5.08	-	-	5.08	-	-	38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11	294	26.73	생명과학대학	35	989	28.26	74	357	4.82	26.73	28.26	4.82	11	35	74				
간호대학	간호대학	5	61	12.20	간호대학	15	181	12.07	31	142	4.58	12.20	12.07	4.58	5	15	31				
미술학부	동양화	-	-	-	-	-	-	-	10	41	4.10	-	-	4.10	-	-	10				
	서양화	-	-	-	-	-	-	-	8	38	4.75	-	-	4.75	-	-	8				
	조소	-	-	-	-	-	-	-	8	65	8.13	-	-	8.13	-	-	8				
	공예디자인	-	-	-	-	-	-	-	14	69	4.93	-	-	4.93	-	-	14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대학	12	152	12.67	컴퓨터학과	24	278	11.58	59	270	4.58	12.67	11.73	4.58	12	38	59				
					전파통신학과	14	168	12.00													
국제학부	-	-	-	-	-	-	-	-	10	49	4.90	-	-	4.90	-	-	10				
언론학부	언론학부	6	239	39.83	언론학부	18	483	26.83	36	117	3.25	39.83	26.83	3.25	6	18	36				

자료 : 연세대학교 2005학년도 지원현황 (서울캠퍼스, 일반전형)

1학기				2학기				정시				비교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경쟁률			정원			2006(정원)												
												1학기	2학기	정시	1학기	2학기	정시	1학기	2학기	정시										
인문계열	58	740	12.76	국어국문학전공	15	142	9.47	인문계열	365	1,074	2.94	12.76	7.66	2.94	58	165	365													
				중어중문학전공	10	67	6.70																							
				영어영문학전공	26	184	7.08																							
				독어독문학전공	16	100	6.25																							
				불어불문학전공	13	81	6.23																							
				노어노문학전공	15	91	6.07																							
				사학전공	17	185	10.88																							
				철학전공	18	119	6.61																							
				문헌정보학전공	10	77	7.70																							
사회계열	138	1,559	11.30	경제학과	65	319	4.91	사회계열	524	1,563	2.98	11.30	6.46	2.98	138	2,404	524													
				응용통계학과	20	131	6.55																							
				경영학과	95	568	5.98																							
				정치외교학과	30	263	8.77																							
				행정학과	30	245	8.17																							
				신문방송학과	18	152	8.44																							
				사회복지학과	12	84	7.00																							
				사회학과	20	167	8.35																							
				법학과	76	419	5.51																							
				심리학 전공	6	56	9.33																							
				-	-	-	-														상경대학	59	230	3.9	-	-	3.9	-	-	59
				-	-	-	-														경영대학	66	238	3.61	-	-	3.61	-	-	66
				-	-	-	-														사회과학 대학	71	348	4.9	-	-	4.9	-	-	71
-	-	-	-	법과대학	52	181	3.48	-	-	3.48	-	-	52																	
이학계열	32	456	14.25	수학 전공	10	106	10.60	이학계열	165	718	4.35	14.25	8.87	4.35	32	87	165	270	1,056	2,056										
				물리학 전공	10	75	7.50																							
				화학 전공	15	171	11.40																							
				생물학 전공	10	128	12.80																							
				지구시스템 과학 전공	13	79	6.08																							
				천문우주학 전공	10	51	5.10																							
				대기과학 전공	10	58	5.80																							
				생화학 전공	9	104	11.56																							
				화학공학 전공	38	333	8.76																							
생명공학 전공	14	258	18.43																											
전기전자공학 전공	60	396	6.60																											
건축공학 전공	18	110	6.11																											
도시공학 전공	14	69	4.93																											
토목환경공학 전공	38	168	4.42																											
기계공학 전공	66	301	4.56																											
금속시스템공학 전공	34	140	4.12																											
세라믹공학 전공	29	114	3.93																											
컴퓨터과학 전공	16	80	5.00																											
정보산업공학 전공	12	61	5.08																											
신학계열	-	-	-	-	-	-	-	신학계열	59	198	3.36	-	-	3.36	-	-	59													
의예과	12	371	30.92	의예과	32	408	12.75	의예과	77	227	2.95	30.92	12.75	2.95	12	32	77													
치의예과	6	138	23.00	치의예과	18	157	8.72	치의예과	41	122	2.98	23.00	8.72	2.98	6	18	41													
간호학과	8	74	9.25	간호학과	24	165	6.88	간호학과 (인문)	30	100	3.33	9.25	6.88	3.68	8	24	61													
								간호학과 (자연)	31	125	4.03																			
생활과학 계열	17	225	13.24	의류환경 전공	7	74	10.57	생활과학 계열 (인문)	55	199	3.62	13.24	8.27	3.91	17	47	110													
				식품영양 전공	13	89	6.85																							
				주거환경 전공	7	80	11.43																							
				아동가족 전공	13	80	6.15																							
				생활디자인 전공	7	66	9.43																							
생활디자인 전공	7	66	9.43	생활과학 계열 (자연)	55	232	4.22																							

자료 : 2005학년도 정시 주요 의과 대학 경쟁률

대학	경쟁률	대학	경쟁률
서울대 의예	3.38(73명 선발)	연세대 의예 치의예	2.95(77명 선발) 2.98(41명 선발)
고려대 의예	4.20(98명 선발)	선균관대 의예	2.97(35명 선발)
경희대 한의예(가) 한의예(다)	2.19(63명 선발) 9.30(20명 선발)	동국대 한의예(가) 한의예(다)	5.00(23명 선발) 7.60(43명 선발)
한양대 의예	2.69(81명 선발)	가톨릭대 의예	2.23(75명 선발)
울산의대 의예	3.33(27명 선발)	강릉대 치의예	5.98(41명 선발)

■ 2005학년도 정시 경쟁률 상위 학과

구분	학과	정원	지원자	경쟁률	선발 군
대구대	경찰, 행정학과군	22	2799	127.23	나군
경원대	의료경영학부(야)	2	153	76.5	다군
경희대(수원)	보컬	3	224	74.67	가군
경찰대	여자	12	729	60.75	
서울산업대	영어과	21	1175	55.95	가군
서울산업대	사회과학군	98	5120	82.24	가군
우석대	약학과	16	761	47.56	다군
경원대	디지털전자공학부(야)	2	90	45	다군
경희대	사회과학부	20	872	43.6	다군
서울산업대	공업디자인학과	10	432	43.2	가군
서울산업대	문예창작학과	16	683	42.69	가군
단국대(천안)	보컬	2	84	42	나군
원광대	약학과	8	328	41	다군
서울산업대	식품공학과	41	1542	37.61	가군
서울산업대	도시문화디자인학과	15	562	37.47	가군
서울산업대	공업디자인학과	9	337	37.44	가군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30	1123	37.43	다군
건국대	영화예술연기	19	705	37.11	다군
대구한의대	간호학과	10	370	37	가군
동덕여대	노래	10	365	36.5	다군
건양대	병원관리학과	14	488	34.86	다군
경찰대	남자	108	3759	34.81	
한서대	간호학과	6	204	34	다군
건국대	디자인학부	20	679	33.95	나군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10	338	33.8	다군
숙명여대	생활과학부	20	648	32.4	다군
명지대	사회과학계열(야)	23	744	32.35	나군
제주대	수의예과	12	380	31.67	다군
한국외대	자유전공학부	20	629	31.45	다군

자료 : 2005학년도 수능 결과분석

1. 언어 영역

원점수	표준점수	인원	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백분위	등급
100	135	1897	0.33	1897	0.33	100	1
99	134	924	0.16	2821	0.50	100	1
98	133	3575	0.63	6396	1.13	99	1
97	131	3120	0.55	9516	1.68	99	1
96	130	5076	0.89	14592	2.57	98	1
95	129	5572	0.98	20164	3.55	97	1
94	128	6706	1.18	26870	4.73	96	1
93	127	7542	1.33	34412	6.06	95	2
92	126	8254	1.45	42666	7.51	93	2
91	125	9362	1.65	52028	9.16	92	2
90	124	10011	1.76	62039	10.92	90	2
89	123	10478	1.84	72517	12.77	88	2
88	121	11115	1.96	83632	14.73	86	3
87	120	11635	2.05	95267	16.77	84	3
86	119	11950	2.10	107217	18.88	82	3
85	118	12050	2.12	119267	21.00	80	3
84	117	12578	2.21	131845	23.21	78	3
83	116	12768	2.25	144613	25.46	76	4
82	115	12960	2.28	157573	27.74	73	4
81	114	12758	2.25	170331	29.99	71	4
80	113	12994	2.29	183325	32.28	69	4

2. 외국어 영역

원점수	표준점수	인원	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백분위	등급
100	139	1498	0.26	1498	0.26	100	1
99	138	3024	0.53	4522	0.79	99	1
98							
97	137	459	0.08	4981	0.87	99	1
96	136	4271	0.75	9252	1.62	99	1
95	135	1242	0.22	10494	1.84	98	1
94	134	5220	0.92	15714	2.75	98	1
93	133	2397	0.42	18111	3.17	97	1
92	132	5752	1.01	23863	4.18	96	1
91	131	3861	0.68	27724	4.86	95	2
90	130	6030	1.06	33754	5.92	95	2
89	129	5119	0.90	38873	6.81	94	2
88	128	6330	1.11	45203	7.92	93	2
87	127	6077	1.07	51280	8.99	92	2
86	126	6761	1.19	58041	10.17	90	2
85	125	14138	2.48	72179	12.65	89	2
84							
83	124	7758	1.36	79937	14.01	87	3
82	123	7577	1.33	87514	15.34	85	3
81	122	8209	1.44	95723	16.78	84	3
80	121	7987	1.40	103710	18.18	83	3

3. 수리 영역 “가”형

원점수	표준점수	인원	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백분위	등급
100	141	482	0.33	482	0.33	100	1
99	-	-	-	-	-	-	-
98	139	23	0.02	505	0.25	100	1
97	138	508	0.35	1013	0.69	99	1
96	137	754	0.52	1767	1.21	99	1
95	136	205	0.14	1972	1.35	99	1
94	135	1326	0.91	3298	2.26	98	1
93							
92	134	1051	0.72	4349	2.98	97	1
91	133	132	0.09	4481	3.07	97	1
90	132	608	0.42	5089	3.49	97	1
89	131	2117	1.45	7206	4.94	96	1
88	130	1332	0.91	8538	5.86	95	2
87							
86	129	1244	0.85	9782	6.71	94	2
85	128	2673	1.83	12455	8.54	92	2
84	127	1184	0.81	13639	9.35	91	2
83	126	1752	1.20	15391	10.55	90	2
82	125	3591	2.46	18982	13.02	88	2
81							
80	124	1229	0.84	20211	13.86	87	3

4. 수리 영역 “나”형

원점수	표준 점수	인원	비율(%)	누적 인원	누적비율(%)	백분위	등급
	150			1390	0.4	100	1
	149			1436	0.4	100	1
	148			2732	0.8	99	1
	147			4574	1.3	99	1
	146			4637	1.3	99	1
	145			7630	2.1	98	1
	144			9288	2.6	98	1
	143			9591	2.7	97	1
	142			11160	3.1	97	1
	141			14065	3.9	96	1
	140			16231	4.5	96	2
	135			29585	8.3	92	2
	130			42648	11.9	89	3
	125			56696	15.8	84	3
	120			72617	20.3	80	3

자료 : 최근 3개년 수능 시험 난이도 변화

■ 평균 점수 변화 (각 영역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과탐	전체(400점 만점 기준)	
		'가' 형	'나' 형				언+수(나)+외+사	언+수(가)+외+사
2003학년도	56.5	49.3	36.6	53.9	50.4	68.3	197.4	228.0
2004학년도	57.6(+1.1)	56.5	41.3	63.6	60.8	54.7	223.3	232.4
2005학년도	68.7(+11.1)	52.3	39.3	58.0	71.2	66.3	237.2	245.3

■ 최상위권 점수 변화(1등급) (최상위권:원점수 기준, 각 영역 상위 4% 또는 1등급)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과탐	전체(400점 만점 기준)	
		'가' 형	'나' 형				언+수(나)+외+사	언+수(가)+외+사
2003학년도	84.2	92.5	78.8	93.8	83.3	95.8	340.1	366.3
2004학년도	84.0(-0.2)	97.0	89.9	96.4	88.4	86.9	358.7	364.3
2005학년도	94.0(+10)	88.0	87.0	92.0	95.0	94.0	368.0	368.0

■ 상위권 점수 변화(3등급) (상위권:원점수 기준, 각 영역 상위 23% 또는 3등급)

구분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과탐	전체(400점 만점 기준)	
		'가' 형	'나' 형				언+수(나)+외+사	언+수(가)+외+사
2003학년도	71.2	70.1	50.0	7.7	66.2	86.9	263.1	303.9
2004학년도	71.6(+0.4)	80.3	61.6	85.2	74.5	71.8	292.9	308.9
2005학년도	84.0(+12.4)	73.0	60.0	76.0	85.0	83.0	305.0	316.0

자료 : 면접 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 아래의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서울의 중요 대학 면접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출처 : 교육정책연구 2000-특-33, 대학입학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특성

아래 긍정적인 특성으로 분류된 내용들은, 면접 시 면접교수들에게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응답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명량 쾌활함	특출한 학생
봉사 경험	수상 경력
재치/유머	풍부한 상식
웃는 학생	전공 관심
인사 잘함	강한 주장

2.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특성

아래 부정적인 특성으로 분류된 내용들은, 면접 시 면접교수들에게 "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미치는 요소라고 응답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나쁜 발음	도덕 부족
요란한 옷차림	인사 안함
작은 목소리	리더십 부족
시선 회피	잘난 척
긴 설명	

3.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은 "영향 없음"이 높은 비율과 빈도로 나타난 내용들로, 면접 전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평가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키 작은 학생	많은 연령	우울해 보임
키 큰 학생	적은 연령	순진해 보임
여학생	교복 착용	매우 긴장
남학생	해외 경험	염색 머리
특정 지역	잘생긴 외모	겉이 많음
특정 고교	강한 사투리	간단한 답변

**지원전략 5단계 - 학습목표를 설정하라!**

	현재 상태	목표 대학의 요구 수준	오차 최소화를 위해
1. 대학별 고사			
2. 서류 준비			
3. 기타			



## 수시 성공을 부르는 마인드 4

### 1. 정시까지 간다!

Memo

### 2. 미리 준비하고 경험한다.

Memo

### 3. 내신 - 수능 - 논구술은 하나다.

Memo

**자료 : 서울대에서 발표한 논술 출제 형식**

대학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평가하고, 중등학교 교과과정과 관련된 내용과 동서고금의 고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재의 예시문을 제시함

**자료 : 고려대에서 발표한 논술 출제 형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추어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며, 대학수학능력 시험과는 가능한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 4. 전략은 1% 실천은 99%!

Memo

# IV-1. 대학별 고사 준비 전략-논구술 일반

조동기

現 조동기 국어논술 전문 학원 원장  
現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국 언어 대표강사  
現 일교시닷컴([www.lgyosi.com](http://www.lgyosi.com)) 인터넷 강의 대표강사  
前 한국학원 강사  
前 대일학원 강사



## 1. 2006학년도 논구술 준비 전략

### 1) 논·구술의 중요성

① 수시 전형에서는 논·구술 성적이 합격 당락의 최대 결정 변수이다.

교육 관련 기관(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분석에 의하면, 학생부 성적(내신) 비중이 설령 총점의 60% 비중을 차지한 경우에도,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률은 3~9% 정도이다.

② 논·구술이 합격의 당락인 이유

- 평가 척도로서의 내신 및 수능 신뢰도 퇴색
- 서류 전형에 포함되는 각종 상장 및 추천서 등도 부적합성 노출
- 입시 전형 축적 자료에서 논술·구술의 가치(유효성 및 타당성) 입증

### 2) 논·구술 준비 전략

① 논·구술의 준비는 ‘수시대비’, ‘정시대비’, ‘논술 따로’, ‘구술 따로’가 아닙니다.

논·구술은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이 통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때만 반짝 될 수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글쓰기와 말하기’는 개념적 원리와 논리적 이해가 가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② 대학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각 학교별로 논술의 특징이 있다. 거기에는 ‘고전이나 시사냐’부터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논제의 형태까지 포함된다. 각 학교의 논·구술 출제경향이나 예시논술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따른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좋다.

## 2. 주요 대학별 합격 전략

###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 1. 언어논술 기출문제- 200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1

(1)

조선 중기에 이르러 향촌에 기반을 둔 사림(士林)이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사림 세력은 강력한 훈구 세력과 대결할 때는 단결하였으나 훈구 세력이 무너진 뒤에는 자체 분열하여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봉당을 형성하였고, 봉당 간에 치열한 정권 다툼이 벌어졌다. 소위 당쟁(黨爭)이라고 불리는 봉당 간의 권력 투쟁은 여러 차례의 사화(士禍)와 같은 정치적 혼란과 폐해를 낳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봉당 경쟁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구양수(歐陽脩)는,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봉당을 이루는 소인과는 달리 군자는 도를 추구하기 위하여 봉당을 이룬다고 하였다. 본래 봉당이란 성리학에서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덕을 닦은 연후에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공도(公道)를 실현하려는 정치집단이었다. 왕권의 전횡을 막고 신진 세력의 등용과 정치 권력의 상호 견제 기능을 담당하였던 봉당정치는, 한정된 관직을 놓고 경쟁하던 당시의 현실에서 의미 있는 정치 형태였다. 그래서 윤휴(尹鑄)는 “봉당은 족히 천하를 어지럽게 하지만, 봉당을 싫어하여 없애버리면 천하를 망하게 하는데 이른다”고 하였다. 양반계급이 추구하는 권력, 지위, 명예 등 한정된 가치의 재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봉당정치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2)

Most countries are populated by several distinct ethnic groups, and as many as half of all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bstantial conflict among such groups. Ethnic differences ar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large-scale conflict within states, and they often cause wars between countries as well. Harmonious ethnic relationships are thus critical elements in achieving and maintaining social peace in most parts of the world. But the issue of creating a national identity that can unite peoples who think of themselves as members of different ethnic groups remains a burning question. Let's consider South Africa as an example. In 1994, the minority white government ended its policy of apartheid (racial separation) and yielded political power to the black majority under the leadership of Nelson Mandela and the formerly banned 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But black South Africans themselves often experience conflicts derived from differing tribal identitie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numerous episodes of conflict and violence between the larger tribal populations, such as the Zulus, and the members of the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

(3)

As new religious groups emerge, it is common that tensions exist between them and the wider society. They not only exist outside the mainstream of society but also provoke resistance from it. New religious groups think old ways of doing things are at best obsolete, at worst evil. The very reason for their existence is to call into question the status quo. They defy conventional rules and question conventional authorities.

One such example of a new religious group coming into conflict with the mainstream society is Christian Science.\*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s Christian Science's belief in the healing power of faith, which has prompted its followers to refuse conventional medical treatment of their children for treatable diseases. What makes such conflict profound is not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s” of the parents and the “interests” of society; rather, conflicting principles are at stake. Since Christian Scientists dispute the distinction of mind and matter that is prevalent in medical science, they argue that even routine diagnosis may “cause” a disease to occur. More problematic is the fact that the recognition of the medical “facts” of disease amounts to the refutation of the moral beliefs of Christian Science.

\*Christian Science: 크리스천 사이언스

(4)

Never in recorded history has there been a time when conflict didn't exist. The most violent form of conflict—war—refers to organized armed violence aimed at a social group in pursuit of an objective. Wars have existed throughout human history and continue in the contemporary world.

However, war is said to be partially responsible for creating the advanced civilization in which we live. Before large political states existed, people lived in small groups and villages. War broke the barriers of autonomy between local groups and permitted small villages to be incorporated into larger political units known as chiefdoms.\* Centuries of warfare between chiefdoms culmin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The creation of the state in turn led to other profound social and cultural changes. Once the state emerged, the gates were flung open to enormous cultural advances, advances undreamed of during a regimen of small autonomous villages. Only in large political units was it possible for great advances to be made in the arts and sciences, in economy and technology, and indeed in every field of culture central to the great industrial civilizations of the world.

Thus war, in a sense, gave rise to the state. Interestingly,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reduced the amount of lethal conflict (i.e., death through war, execution, homicide, or rebellion) in a society by providing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chiefdom: 군장사회(君長社會)

<유의 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은 한글로 작성할 것.
3.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4. (인문계의 경우)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은 각각 110~140자, II는 총 700±50자가 되게 할 것.

<인문계 문제>

- I. 제시문 (1), (2), (3), (4)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50점)
- II. 네 개의 제시문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입니다. 각 제시문의 관계를 밝히고,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50점)

<자연계 문제>

- I. 제시문 (1), (2), (3), (4)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각각 110~140자, 각 20점)
- II. 네 제시문의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띄어쓰기 포함 110~140자, 20점)

1-1. 언어논술 출제 경향

구분	지문	형식	논술문제	글자수	
				요약	논술
인문계	3~5개 (영문 절반이상)	지문요약 + 논술	지문간의 연관관계, 공통주제, 자신의 의견	각 지문당 110~140자	650~750자
자연계	인문계와 동일	인문계와 유사	공통주제와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서술	각 지문당 110~140자	110~140자

※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수리논술 시간은 120분

## 1-2. 언어논술 대비전략

고려대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문이 딸린 논술문제가 출제되어 왔다. 단문으로 “무엇에 대해 논하시오”가 아니라 두세 가지 지문을 읽고 종합하여 논술하라는 요구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i)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 ii) 논제를 파악하는 능력, iii)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표현하는 능력. 이 세 가지 요구에 입각하여 잘 생각해 본다면 논지전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수하기 쉬운, 그러나 정말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 ① Don't be so impatient

너무 서두른 나머지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문을 요약하고, ~에 대하여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진 문제가 분명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바로 요약과 논술. 그런데 문제를 성급히 읽고는 바로 지문읽기에 들어가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다 쓰고 나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지문 요약하는 것을 빠트린 경우 등등.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잘 썼다 해도 요약을 빠뜨린 만큼 점수가 마이너스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억울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다.

### ② 지킬 건 지키다

논술할 때 보면 ‘몇 자로 쓰시오, ± ○○○자’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이 있다. 이 글자수 제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해진 분량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능력이 논술에서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니 글자 수 제한을 간과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 ③ 설계도면 없이 집 짓지 않기

논제가 파악되면 우선 개요를 짜야 한다. 글 한편을 생각만으로 쓸 수는 없다. 흔히 개요짜기를 집을 지을 때 설계도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맞는 말이다. 설계도면 없이 집을 짓는다면 부실공사를 부르기 쉽다.

### ④ 낙서금지

시험지를 마치 자신의 노트를 사용하듯 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별표)를 친다든지, 밑줄을 긋는다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빠트린 이야기를 이야기 주머니에 묶어서 화살표로 끌어와서 쓴다든지 하는 등등. 고등학교에서 필기할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엄연히 하나의 시험이다. 교수님들께서는 그런 표시에 익숙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답안지는 왔다 갔다 하며 찾아서 읽어야 하니까 제대로 읽기 어렵다. 그러니 시험지에 낙서금지!

### ⑤ 예를 들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 버리기

참신한 예나 인용을 하면 자신의 글에 좋은 인산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예를 들었을 경우에 한정된 것이다. 선불리 엉뚱한 예를 든다거나, 필요 없는 부분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면 즐겨 쓰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었다.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 모든 학생들의 글을 한번 쭉 다 읽어보고 다시 하나씩 채점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떤 글에서 참신하다고 느껴진 예시가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예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건 같은 논술학원을 다녔거나, 같은 논술 책을 봤거나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경우 채점하는 쪽에선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2. 수리논술 기출문제- 2004학년도 고대 수리논술

<인문계 문제>

1. 함수  $f(x) = x - 1$  와  $h(x) = x^3 - x^2 + a$  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이때,  $a$ 는 상수이다)

- ①  $g(x) = 1 + \int_0^x f(t) dt$  를 구하고,  $y = g(x)$ 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 ②  $g(x) = 0$  의 한 근이  $h(x) = 0$  를 만족할 때,  $a$ 의 값을 구하시오.
- ③  $x$ 축,  $y$ 축,  $y = h(x)$ 의 그래프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②에서 구한  $a$ 를 사용하시오)

2. 미차부등식  $4x^2 + 4x - 3 \leq 0$  을 만족하고 행렬  $\begin{pmatrix} y & x^2 \\ x+3 & 1 \end{pmatrix}$ 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x, y$  에 대하여,  $y$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3.  $n$ 이 자연수일 때,

- ① 부등식  $\frac{x}{2} + y \leq n$  을 만족하는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 ② ①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에 속하며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x, y)$  의 개수를  $n$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4. 함수  $y = x^2$  과 평면 위에서  $b > a^2$  을 만족하는 한 점  $A(a, b)$ 를 잡는다.

- ① 점  $A(a, b)$ 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그 직선과 포물선  $y = x^2$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 ② ①에서 구한 직선과 포물선  $y = x^2$  과의 교점을  $P$ 와  $Q$ 라고 하자.  
포물선  $y = x^2$  위의 점  $R$  이  $P$ 에서  $Q$ 까지 움직일 때,  $\triangle PQR$ 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R$  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연계 문제>

1. ①  $0 \leq x \leq \pi$  에서 곡선  $y = \sin x$ 의 접선이 직선  $y = \frac{x}{2}$ 와 평행하게 되는

곡선 위의 점  $P$ 를 구하시오.

② 점  $P$ 에서 곡선  $y = \sin x$ 의 법선과  $y$ 축의 교점  $Q$ 를 구하시오.

③ 선분  $PQ$ ,  $y$ 축, 곡선  $y = \sin x$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2. ① 음이 아닌 실수  $x$ 에 대하여  $F(x) = \lim_{n \rightarrow \infty} \sum_{k=0}^n \left(\frac{x}{n}\right)^k \left(\frac{kx}{n}\right) \sin\left(\frac{kx}{n}\right)$ 라고 할 때,

$F\left(\frac{\pi}{2}\right)$ 를 계산하시오.

②  $0 \leq x \leq 2\pi$ 에서  $F(x)$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3. 공간 위에 네 점  $A(1,1,4)$ ,  $B(1,4,1)$ ,  $C(3,2,1)$ ,  $D(4,5,3)$ 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  $ABCD$ 와 평면  $x+y+z=3$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점  $D$ 의 주어진 평면 위로의 정사영  $D'$ 의 좌표를 구하시오.

②  $\triangle ABC$ 의 주어진 평면 위로의 정사영  $\triangle A'B'C'$ 의 넓이를 구하시오.

③ 사면체  $ABCD$ 의 주어진 평면 위로의 정사영은 어떤 형태의 도형인가?

4. 세 점  $O(0,0)$ ,  $P(1,0)$ ,  $Q(0,1)$ 로 이루어진  $\triangle OPQ$ 와

행렬  $A = \begin{pmatrix} t+1 & 2t \\ 2te^t & e(t+1) \end{pmatrix}$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0 < t < 1$ 에서 고정된  $t$ 에 대하여  $\triangle OPQ$ 가 행렬  $A$ 로 나타내지는 일차 변환에 의해 옮겨진 도형을 그리시오.

②  $t$ 가  $0 \leq t \leq 1$ 사이를 움직일 때,  $\triangle OPQ$ 가 행렬  $A$ 로 나타내지는 일차 변환에 의해 옮겨진 도형의 자취가 생성하는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 참고로 위 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 재구성한 문제이므로 실제 시험문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인문계 1번 적분문제는 현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 2-1. 수리논술 출제경향

### ① 수리논술 반영비율

- 1) 인문 : 언어논술 45% + 수리논술 25%
- 2) 자연 : 언어논술 25% + 수리논술 45%

### ② 수리논술 출제범위

구분	인문계열	자연계열
수시 1	공통수학(10가, 10나) 수학 I	공통수학(10가, 10나) 수학 I, 수학II
수시 2	공통수학(10가, 10나) 수학 I	공통수학(10가, 10나) 수학 I, 수학II, 미적분학

※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수리논술 시간은 90분

### ③ 수리논술 출제유형

인문계·자연계 : 총 문항수 4개에서 7개 문항 (서술형 1~2, 풀이형 3~5)

### ④ 출제 난이도

고대 수리논술 문제는 논술이라기보다 주관식 수학문제에 가깝다. 출제문제의 난이도는 수능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시험 문제수준이다. 그러나 과거 본고사 시절에 나왔던 만큼의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본고사금지 원칙에 따라 더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수준으로 예상된다. 2005년 시험의 경우 내신 5%이내의 학생의 경우 보통 2문제를 완벽히 답하면 합격하였다. 만약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경우에는 적어도 3문제 이상을 완벽하게 답해야 한다. 2005년 시험에서 수학 4문제를 완벽하게 답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고 100% 합격하였다.

## 2-2. 수리논술 대비전략

수험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수리논술이 만만치 않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기간 어려운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한다.

- ① 풀이과정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갖자. 수리논술에서는 풀이과정을 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답만 찾으면 되는 수능시험과는 다르다. 평소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갖자.
- ② 기본적인 공리와, 공식들의 증명과정을 충분히 연습하라. 수리논술이 본고사화하지 않으면서 시험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앞으로 증명문제를 많이 출제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미분가능성, 연속가능성 등 기본적인 개념들을 증명하는 문제가 이미 출제되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문제들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직접 써보라.
- ③ 자료 분석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므로 자료를 도표화하여 비교 설명하는 방식을 연습하라.
- ④ 도형의 자취와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므로 집중적으로 연습하라.

##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 1. 면접구술 기출문제- 2002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1

#### <인문계>

##### (사회과학)

- ◆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꿈이 무엇인가.
- ◆ 두가지 타입의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아나운서 (뉴스 앵커로서로만 일하는 아나운서), 또 하나는 예능활동도 해가면서 연예인에 가까운 아나운서라면 학생은 어느쪽을 지향하겠는가.

##### (상경대학)

- ◆ 자기소개를 해보라.
- ◆ 왜 연대가 자네를 뽑아야 하는가.
- ◆ 얼마전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는데 학생이 통일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대처했겠는가.
- ◆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 시민들의 고발을 받고 있는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
- ◆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의 대해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라.
- ◆ 요즘 공무원들을 일정비율로 뽑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요즘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주체성 상실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한 세계화라고 하는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과대학)

- ◆ 지원동기는 무엇인가.
- ◆ 타임캡슐에 꼭 넣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두가지 말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라.
- ◆ 내가 축구감독인데 첫경기를 항상 지는 징크스가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 영화나 소설들에서 나와 닮은 캐릭터가 있다면 말해보라.

##### (국어국문)

- ◆ (공모전에서 수상한 지원자에게) 문창과를 지원하지 않고 왜 국문과에 지원했는가.
- ◆ 여권신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라.

##### (교육학과)

- ◆ 자기소개를 해보라.

- ◆ 낙선운동에 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라.
- ◆ 영화나 소설 속에서 " 아!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느낀 인물이 있다면 말해보라.
- ◆ 만약 고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인데 반 학생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 ◆ 10년 후에 학생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라.
- ◆ 영어공용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당신은 결혼을 하겠는가.

(특기자 전형: 중국어)

- ◆ 우리나라가 현재 취한 상황속에서 경제문제가 심각한가? 아니면 정치문제가 심각한가?
- ◆ 인생에 있어 필연이 많은가? 아니면 우연이 많은가?
- ◆ 중국어를 한 번 해보라.

<자연계>

(정보산업)

- ◆ 정보 통신 기술(PDA, IMT-2000, CDMA 등)이 발달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 연대에서 한달동안 외국에 모든 비용을 대준다면 어디에 가고 싶은지 전공과 관련하여 말해보라.
- ◆ 꼭 대학에 와야 하는가? 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하고 싶은 말이나 전에 한 대답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
- ◆ 국군의날, 한글날이 공휴일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 ◆ 초.중등 교육붕괴에 대해서 말해보라.
- ◆ 이 학과에 대한 준비는 했었는가. 했다면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라.

(도시공학)

- ◆ 학생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 ◆ 모교 선배 중 가장 유명한 선배는 누구인가.
- ◆ 현대사회의 기술 발달이 인간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은?
- ◆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전기.전자공학)

- ◆ 당신이 회사에서 사장이라면 전직원에게 영어를 공용화 시키겠는가.
- ◆ 실적이 나쁜 사람이 프로젝트를 맡고서 실적이 좋은 자신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 ◆ 자연과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 ◆ 초등.중등 교육의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 ◆ 로봇애완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라.

## 2. 출제경향

지난해 연세대 수시 1학기 평균 경쟁률은 11:1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경쟁률은 무의미하다.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며, 실질 경쟁률은 2:1 정도일 뿐이다. 연세대학은 1학기에 수시 모집하는 학교 가운데 최고 일류대이기 때문에 1)단계 심사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우열의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에 연세대 1학기 수시에 합격한 학생과 불합격한 학생의 심층 면접 능력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다. 당락은 심층 면접에 있다.

연세대 면접시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면접 문항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동노 교수의 글을 통해 면접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알아보자. 면접 문항은 크게 3종류로 나뉜다.

① 사회 엘리트 자질 영역, ② 자아 및 가치관 영역, ③ 전공 적성 영역이다.

① 사회 엘리트 자질 영역의 문제를 통해서 입학 담당관은 이 사회에 대한 관심도와 이 사회의 여러 갈등 속에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점수화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일방적은 6자 회담의 결렬 선언과 핵무기 보유 선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빈부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줄기 세포 연구는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인가? 불행의 씨앗인가?” 등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연세대는 시사적인 이슈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② 자아 및 가치관 영역의 문제를 통해서 입학 담당관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태도, 이 사회, 국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을 통해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를 점수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인생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태도의 근본인 학생 자신의 가치관을 묻는다. ‘그러한 태도를 갖게 한 학생 자신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학생의 가치관은 학생 자신의 삶에 연결되었는가?’ ‘가치관이 자신의 삶에 연결되었다면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고,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인생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인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혹은 영화) 가운데 자신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학생은 어떤 준비를 해 왔는가?” 등이다.

③ 전공 적성 문제를 통해서 입학 담당관은 전공을 택하는 이유, 목적의식을 알고자 한다. 단순히 흥미가 있어서 라거나 보수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기에 유리해서 라는 이유는 좋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전공에 대한 탐색을 해 보았는지 묻기 위해서 전공과 관련된 문제를 낸다. 그렇다고 그 문제가 지엽적인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학생이 선택하려는 전공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직장 선택과 전공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등 전공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점수화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정보화 사회에 인문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공하는 학문이 인류 발전에 어떤 공헌은 했다고 생각하는가?” 등이다.

## 3. 대비전략

연세대가 원하는 인재는 시대 현실에 민감한 사람이다. 시대 현실에 대한 민감성은 신문만으로는 키워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시대 현실에 대해 민감성을 키울 수 있을까? 인류는 인류 역사라는 그 동안의 삶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세워왔다.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사랑, 박애, 희생 등등이 보편적 가치이며, 이것은 이 세계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믿어져왔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참된 의미는 고전을 통해서 습득된다. 고전을 섭렵하다보면 어느 시대에나 반드시 있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깨달은 마음으로 이 시대의 신문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시대의 흠결된 부분이 보이게 된다. 이때 비로소 이 사람은 시대 현실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손에 보편적 가치를 한 손에 신문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연세대가 원하는 인재상이다.

연세대의 심층 면접은 한 마디로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묻는다. 세계는 가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 또한 가치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인식되지도 않는 무수한 형식, 규정, 구별이며, 개인은 세계의 이러한 형식과 규정과 구별을 통해 자기 자신을 형식화하고 규정하고 구별 짓는다. 이를 통해 개인은 개별자이며 동시에 보편자로서의 자리를 성취한다. 예컨대 국가라는 형식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인식되지도 않으나,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있어 막강하고 분명한 형식이며, 규정이며, 구별이다. 이때 개별자이며 보편자인 개인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즉 자유인이 된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구술, 논술 시험은 자유인을 위한 시험이다. 논·구술시험은 자유인인지를 묻고, 자유인으로서 무엇을 하여 이 세계에 기여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이다.

학생은 짧은 기간이지만 자유인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술시험은 사실상 토론이다. 다만 그 대상이 입학 담당관일 뿐이며, 학생이 공격할 수 없을 뿐이다. 토론기술은 짧은 시간에 심층 면접에 성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필자는 연세대에서 심층 면접을 두 번 치룬 경험이 있다. 한번은 학부 입학 시에 그리고 한번은 대학원 입학 시에 그러했다. 교수들의 질문은 집요하면서, 친절하다. 2006학년도 연세대 수시 1학기 심층 면접에 성공하려는 학생은 토론을 통한 자유인 교육을 받으라.

서강대학교 수시모집

1. 기출문제- 2005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2- I 학기 영어혼합형 논술 문제

<인문사회계열>

[A]

Regardless of how your job is officially classified or the industry in which you work, your real competitive position in the world economy is coming to depend on the function you perform in it. Herein lies the basic reason why incomes are diverging. All Americans used to be in roughly the same economic boat. Most rose or fell together as the national economy as a whole became more productive or languished. But national borders no longer define our economic fates. We are now in different boats, one sinking rapidly, the other rising steadily.

Modern factories and state-of-the-art machinery can be installed almost anywhere on the globe. Therefore, unskilled workers in the U.S. are in direct competition with millions of workers in other nations. Furthermore, automated tellers, computerized cashiers, automatic car washes, robotized vending machines, self-service gasoline pumps, and all similar gadgets replace the human beings that customers once encountered. The same phenomenon takes place in financial transactions, airline and hotel reservations, rental car agreements, and similar contracts, which are increasingly executed between consumers in their homes and computer banks somewhere else on the globe.

Unlike the boat of unskilled workers, the vessel containing America's information analysts is rising.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expanding world market and increasing global demand for the services of information analysts has been the dramatic improvement in worldwide communication and data-processing technologies. Information analysts working in highly specialized areas are in such great demand worldwide that they have difficulty in keeping track of all their earnings. Never before in American history has wealth on such a scale been gained by a small percentage of workers.

[B]

지식사회는 상승이동이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열려있는 최초의 인간사회이다. 지식은 상속할 수도 물려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산수단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지식은 모든 개인이 새로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지식은 가르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하는데, 이것은 지식이 공공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은 항상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거나, 또는 급속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식사회를 고도의 이동사회로 만든다. 이제 지식은 한 장인 아래서 도제노릇을 하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학교에서 사전에 정해진 학습과정에 따라 배울 수 있다.

1850년 또는 1900년까지는 어떤 사회에서도 이동성이 극히 낮았다. 출생 때의 신분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까지도 결정하는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다. 다른 대부분의 사회에서도 아버지가 농부면 자식도 농부가 되었고, 그 딸은 농부와 결혼했다.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마저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승이동의 기회는 매우 드물었다. 20세기 전반기의 미국에서 전문직과 경영자의 대다수는 농부, 소규모 가게 주인, 또는 공장 노동자의 자식이 아니었으며, 여전히 전문직과 경영자의 자식들이었다.

지식사회는 상승이동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한다. 지식사회는 상승이동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차별이라 간주한다. 즉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이전 세대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물론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뛰어난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있다.

<문항1> 제시문 [A]의 밑줄 친 부분을 번역하시오(300자 이내). [40%]



<문항2> 제시문 [A]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시오(400자 이내). [30%]

<문항3>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견해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논술하시오(500자 이내). [30%]

## 2. 출제경향

서강대 자유·노동·죽음 등 인간관련 주제 빈번

최근 2년 동안 정시논술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하나의 주제나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이나 접근법을 가진 제시문들을 세 묶음으로 분류해서 주고, 제시문들을 관련지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의하게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제시문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는 크게 힘들지 않지만, 제시문이 함축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 내고, 제시문 사이의 관련성을 적절히 해석해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다. 특히 고전과 현대문을 연관짓는 능력, 따라서 고전적 관점을 현대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논제가 다루는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 중 인간 존재의 근원적 현실과 관련된 철학적인 주제들이 자주 출제된다. 인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노동, 쾌락, 죽음, 역경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필요하다.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잠정적이지만 한 번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계간으로 발간되는 대학 안내 책자인 '알바트로스' 안에 논술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및 예시 답안에 대한 강평이 실려 있으므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시의 경우는 영어 논술 시험이 실제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학생처장 아들의 부정 입학의혹에서 보여지듯이 실제로 내신의 비중보다는 영어논술에 의한 중요성이 매우 중요함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어 제시문의 내용이 실제의 한국 사회의 여러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바 단순한 영어 독해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3. 대비전략

위에 실은 문제가 실제의 서강대 문제이다. 영어의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했기에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위의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영어 만점자가 입학처장의 아들 단 한사람 뿐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학생들이 영어를 해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영어에 대한 해석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실력이면 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논술의 해결이 필요했고 이부분에서 만점자가 나오기가 어려웠던바 이를 혼자서 해결한 입학처장의 아들에 대한 부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서강대의 경우 기초적인 영어 독해능력과 서강대가 관심을 보이는 자유·노동·죽음 등 인간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한 논술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다면 내신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은 서강대 수시야 말로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수시모집

1. 기출문제- 200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1 인문계열

1-1. 논술고사

- I.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단, 요약내용은 답안지 제 1면을 전부 사용하여 기술하시오.
  - II. 아래 4개의 <제시문>에 나타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단, 각 <제시문>을 논거로 충분히 활용하고, 3개의 <표>를 모두 인용하시오.
- 유의사항 :
- 1. 인적사항과 관련된 표현을 일체 쓰지 말 것.
  - 2. 연필을 사용하지 말고,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1-2. 구술고사

‘파스칼의 내기’(Pascal’s Wager)에 관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박꾼의 주장’(gambler’s argument)으로도 잘 알려진 ‘파스칼의 내기’는 신을 믿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도박꾼의 ‘합리적’ 선택행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도박이 벌어지기 전에 그 도박의 가능한 결과들을 추측하며 판단을 결듯이,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운명적 결과들--영원한 생명(천국)과 영원한 저주(지옥)--을 예상해보고 신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지론자는 신이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쪽도 선택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심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박꾼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도박꾼은 사실적 증거나 양심의 소리에 상관없이 예상되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며 선택(도박)을 한다. 도박꾼에게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가능한 한 최고의 상금을 탈 수 있으면서도,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도박꾼의 입장에 따르면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은 신을 믿는 것이다.

선택의 최종적 결과는 몇 가지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첫째 상황은 신의 존재를 믿기로 결정하고 이긴 경우로(즉, 신이 존재할 경우), 최고의 상금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가로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자신의 뜻보다는 신의 뜻에 복종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단계 I]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50)

- 문제 1. 선택의 결과는 몇 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 있는가? (75)
- 문제 2. 각각의 경우에 도박꾼은 어떤 상금(보상)을 얻고 어떤 희생(손실)을 예상하겠는가? (75)

## 2. 출제 경향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확인하는 논술

성균관대 논술은 인문계와 자연계를 분리 실시한다. 문제는 각 계열별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려는 것이 학교에서 밝히는 출제방향이다. 특히,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형태가 인문계에서 출제된 바 있으며, 자연계는 생명과학, 물리, 화학, 수학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 3. 대비전략

### ① 전형 유형 확인하기

1학기 수시는 크게 면접구술을 보는 학업우수자 전형과 논술을 보는 전형인 교과우수자 전형이 있다. 학업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가 60%, 면접이 30%이고, 교과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40%, 논술 50%이므로 학생부 성적이 좋은 경우 학업우수자 전형이 유리하다. 또, 면접구술과 논술 중 자신 있는 전형을 판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서 작성도 방법이 다른 것에 유념해야 한다. 학업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제출에 포함되지만, 교과우수자 전형은 논술시험 후 뒤이어 직접 작성하는 차이가 있다.

### ② 논술, 면접 철저 대비 ; 논술반영 3%인데도 수험생의 44.2%가 당락이 뒤바뀜

2005학년도 대입 일정이 일부 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만 남겨놓은 채 끝나가고 있다. 정시모집에서 드러난 논술의 특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질 반영률이 높아 주요대에서 ‘막판 뒤집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연세대는 정시 논술 반영 비율이 4.2%였지만 전체 수험생의 14.9%가, 성균관대는 3%인데도 수험생의 44.2%가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향신문 2005-2-01>

- ▶ 성대 논술은 정통논술 유형으로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논술의 기본기를 철저히 해야 어떤 논제에도 답변할 수 있다. 논술을 늦게 시작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본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 ▶ 성대 논술은 자료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 성대 논술의 특징 중의 하나로, 이번 수시에도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 ▶ 교과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자기평가서 작성이 직접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해야 한다.
- ▶ 수시의 경우, 영어 제시문의 비중이 크다. 성대 논술의 영어 제시문은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한 글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논리적 전개 성격이 강한 영문을 많이 다루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 1. 기출문제

#### ① 이화여자대학교 2004학년도 정시 문제

구체적으로는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와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의 '깃다르타, 한 인도의 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각각 발췌한 글을 예시문으로 낸 뒤 '헤세의 글과 다산의 글에 나타난 삶의 방식이 보드리야르가 진단한 현대 소비사회와 갈등을 빚는 이유와 양상을 서술하고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관점에서 논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학교 측은 "학생 자신이 경험하는 소비사회의 다양한 일면들을 되돌아보면서 왜 이제는 자연이나 사물과의 순수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됐는지를 분석하고 그 관계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해야 하는 만큼 비판적 사고능력과 논술력을 측정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 ② 이화여자대학교 2005학년도 정시 문제

제시문 (가), (나), (다)는 환상, 신화, 축제와 같은 비일상적인 것들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제시문(라)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하여 현대 사회 안에서 비일상성이나 비현실성이 지니는 기능을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 되었다. 이는 04년도와 유사하게 학기 중반에 실시된 모의 논술 주제인 가상공간의 현대적 이해라는 주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논제가 출제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화여대는 모든 논술 문제의 출제를 고전이라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지만 옛것에 사로잡히는 않는 유연성을 통해 고전의 현대적 이해와 연결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출제경향

#### ① 출제의 기본방향 분석

이화여자 대학교는 대학교육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06년도 수시 1학기 입시에서 전년도에 실시하던 면접 구술에서 논술로 방향을 선회 하였다.

이는 05년도 정시 입시에서 서울대학교가 기존의 심층면접에서 다단계 전형으로 1차는 내신과 수능 2차는 논술과 구술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향후 이화여대 입시는 기존의 영어중심의 심층면접과 더불어 현대 사회 제 현상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수험생의 이해를 논하는 논술 중심의 전형이 강화되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이화여대는 정시전형에 논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제는 문·이과를 통합한 현대사회의 이해에 기초한 수험생의 논리적 서술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② 대학측의 발표 예시

본교 논술고사의 출제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초적 자질로서의 논술 능력을 평가 한다'는 기본 방침을 준수하면서, 1998년도 논술고사 시행을 앞두고 서울 시내 12개 대학에서 결의한 '동서고급의 고전에서 출제 한다'는 출제의 기본 원칙을 참조하였다. 고전 중심의 출제는 그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전의 정의를 '동서고급의 고

전'이라고 구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나 수험생들이 다 같이 그것을 '고대(古代)의 명작'으로 축소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고전 중심의 출제는 다양한 독서체험을 권장한다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특정 작가와 작품에 국한하는 제한된 글 읽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에 해가 거듭되면서 그런 경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본교는 지난 수 년 동안의 출제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하였다.

- (1)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구체적인 주제로서 사 고의 폭과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 (2) 대학교육에 필요한 글읽기, 글쓰기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아래 인문계와 자연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 (3) 2003년 5월에 시행한 본교의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여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하였다.

### 3. 대비전략

#### ① 학교의 입장- 강혜련 입학처장

- 지원동기 밝힌 자기소개서가 1차관문
- 성실함과 도전정신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고자 노력한다.
- 수시 1학기 전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
- 수시 1학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는 특별하다. 우선 삶의 목표가 뚜렷하며 지원대학과 학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기회를 붙잡는 학생들이다.
- 또 본인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고 도전할 줄 아는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독창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같은 맥락에서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부 성적 외에도 지원자의 소질과 적성을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학업 관련 증빙서류, 자기소개서, 구술면접의 전형요소를 통해 다양한 능력의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

#### ② 수시 입시 전략

우선 06년도 수시 1학기에서 새롭게 논술전형이 적용되는 만큼, 예상되는 다양한 주제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교육을 통해 수험생이 충분히 논술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조동기 국어논술 학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전문적인 글쓰기 교육을 통해 이화여자대학교 논술고사에서 필요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자기주장 및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험생 개인의 개성과 인생목표가 확실하게 부각된 소개서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하며, 06년도 이전까지 실시되었던 영어 구술 면접 수준의 고문 영어지문 제시와 지도를 통해 논술 제시문 독해의 어려움을 극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05년도 정시에서 서울대가 국한문혼용지문을 제시문으로 사용한 것을 감안한 다양한 제시문 연습을 병행할 예정이다.

## 한양대학교 수시모집

### 1. 입시의 특징

- ① 전공적성검사 - 자세한 내용은 입학정보홈페이지 FAQ 참조
- 수험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및 자신의 체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평가
    -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한 학습정도
    -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지식 개발정도
  - 전공적성검사 영역별 내용(인문계·자연계 공통 문제출제 : 객관식)

언어능력검사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과 언어추리검사 등을 측정하는 평가로 학생들의 종합적인 언어사용능력 검사
사고공간검사	·귀납적 추리력 ·일정한 논리적 원리 추리능력 ·2차원과 3차원 관계를 이해할 줄 아는 능력 ·전체적 상황판단 및 그 오차를 식별할 줄 아는 능력

- ② 심층면접(1단계 합격자: 2.5배수) - 자세한 내용은 입학정보홈페이지 FAQ 참조
- 전공적성 및 수학능력 평가
  - 면접문항은 고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출제(수시 1학기 : 1학년 ~ 3학년 1학기까지 교과과정)
  - 심층면접 방식

인문계(수험생 4명, 면접위원 3명)	자연계(수험생 1명, 면접위원 3명)
·영어지문 제시 : 수험생에게 동일지문 제시(대기실) ·영어지문 이해 및 답변준비 : 20분정도(대기실) ·면접위원 질문 및 수험생간 토론 : 20분정도(고사실)	·수학/물리, 수학/화학 중 택1(대기실) ·문항이해 및 답변준비 : 20분정도(대기실) ·문제풀이 및 면접위원 질문 : 20분정도(고사실)

- ※ 심층면접의 면접시간 및 인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사범대학은 인성가치관 면접이 있음
-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면접은 영어로 진행함

### 2. 기출문제

#### ① 전공적성검사

□ 언어 적성 문제 예시 [3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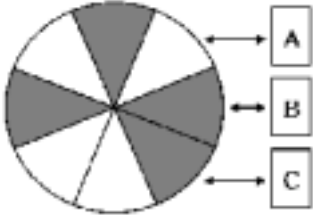
40. "좋은 시조는 종장 첫구의 감탄형 3음절을 전환점으로 삼아 초장과 중장에서 보여준 같등이나 대립을 아우르고 조화를 지향한다." 다음 상자에 제시한 시조에서 이 말에 맞게 종장을 구성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연분(緣分)이 그만인가 오늘이 이별이라  
일거삼천리(一去三千里)에 또 언제 다시 보리  
( )

- |                         |                              |
|-------------------------|------------------------------|
| ① 님이여 발병 난다 가지말고 돌아오소   | ② 꽃 피고 달 밝거든 날 왔는가 여기소서      |
| ③ 님이여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못살겠네 | ④ 어이타 눈 내리는 날이면 그 추움을 또 어이하리 |

□ 사고·공간 적성 문제 예시

1. 일반 추리력



▣ 실시 요령

위의 원판에서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은 각각 0 혹은 1을 나타낸 것이다. 원판이 매회 일정한 각도로 회전 하면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가 A, B, C에 대응된 것이다.

[문제] 시계 방향으로 45°씩 회전할 때 생기는 수열 ABABABABAB...는? (답 : ①)

- ① 1001100110...    ② 0101101011...    ③ 1000110011...    ④ 1010101010...

3. 대비전략

① 전공적성검사 대비 철저

교시	내용	문항 수	검사시간	문항당 소요시간	
1교시	언어능력검사	언어사용능력검사	25	50분	30초
		언어추리력검사	75		
2교시	사고,공간검사	일반추리력검사	40	15분	22.5초
		논리력검사	40	15분	22.5초
		공간관계검사	40	10분	15초
		지각판단력검사	40	10분	15초

위의 표를 보면 실제 전공적성검사라고 하는 것이 위의 표에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문항 당 소요시간은 매우 짧은 편으로 따로 연습을 한다고 해도 전과 큰 차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시험장에서 낯설게 만나는 것보다는 미리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양대를 비롯 전공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대학(한양대, 인하대, 아주대, 경희대)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점검해 두어야 할 부분이다.

② 2006학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논술고사.

보도기사에 의하면 올해 수시모집부터 1단계 전형에서 적성검사 50%, 논술을 50% 반영한다고 한다. 50%의 반영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부담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앞으로 모의논술시험이나 출제방향 등이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더 늦기 전에 논술을 시작해야 한다.

## IV-2. 대학별 고사 준비 전략-과학 영역

### 이 歴

- 現 와이즈멘토(주) 이사 ([www.WiseMentor.net](http://www.WiseMentor.net))  
現 프리에듀넷(주) 대표이사 ([www.FreeEdu.net](http://www.FreeEdu.net))  
現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과학탐구 강사
- 2004년 EBS 및 강남구청 인터넷강의 초빙
  - 2003년 말 학원가 은퇴 및 메가스터디 사퇴, 전면 무료강의 선언
  - 1998~2002 논술특강 강의
  - 통합과학의 창시자(고3과학 전과목 1인강의)
  - 5년간 대한민국 과학탐구 최다수강생 기록
- 前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강사 겸 기획이사





## 대학별고사 과학 영역

### 1. 문이과 공통형 : 연세대, 서강대(정시), 교대 등

수학·과학에 대한 전문적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지원 동기나 일반 교양 및 기본 소양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시사적 질문 등이 나옴.

예) 연세대 : 고교 평준화, 이공계 기피현상, 계놈프로젝트, 지원동기

### 2. 수학 중심형 : 고려대, 서강대(수시), 울산대 등

### 3. 과목 선택형 : 서울대, 포항공대, 한양대, KAIST(별도전형) 등

수학 및 과학 과목들 가운데 하나 또는 두개를 선택하여 문제에 답함.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이며 과학의 경우 과학Ⅱ 수준의 지식을 요구함.

예) 서울대(물리) : 행성의 표면 80m의 상공에 정지해있는 1kg의 로켓을 행성에 착륙시키고자 한다. 추진제를 5초간 사용할 수 있어 상공 62m 지점부터 추진제를 5초간 사용하기로 하였다...

### 4. 과목 혼합형 :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홍익대, 아주대, 중앙대 등

수학 및 과학 과목들 문제가 혼합되어 출제됨. 일부 통합교과형 문제를 병행 출제하는 경우도 있음(이화여대, 중앙대 등).

예) 성균관대 : 전기음성도, 결합의 극성, 분자의 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성비의 원인, 발생과정, 피해양상, 경감대책을 설명하시오.

예) 홍익대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태풍의 경우, 태풍 진로의 좌측·우측 중 어느 지역의 피해가 더 심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 위 (1)~(4)에 더하여 지원 단위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예상문제들은 항상 체크해야 함.

예) 고려대 공대에서 수리논술 문제들에 더하여 'CDMA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추가한 경우

## IV-3. 대학별 고사 준비 전략-수리 영역

한석원

現 한수학원 원장

現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수리영역 강사

現 티치미(<http://www.teachme.co.kr>)의 수리영역 강사



1. 출제경향

- (1) 난이도의 측면에서 예전의 본고사와 흡사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된다.
- (2) 기본적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개념의 응용문제까지 다단계로 이루어진 문항들이 출제된다.
- (3) 출제의 범위는 고교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분석, 종합, 심화해석, 그리고 응용에 이르기까지 심층적 문제들이 출제된다.
- (4) 학교마다 약간의 출제경향상의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의 심각한 차이는 아니다.

2. 주제별 주요 기출문제

[기하]

1. [2002]포항공대 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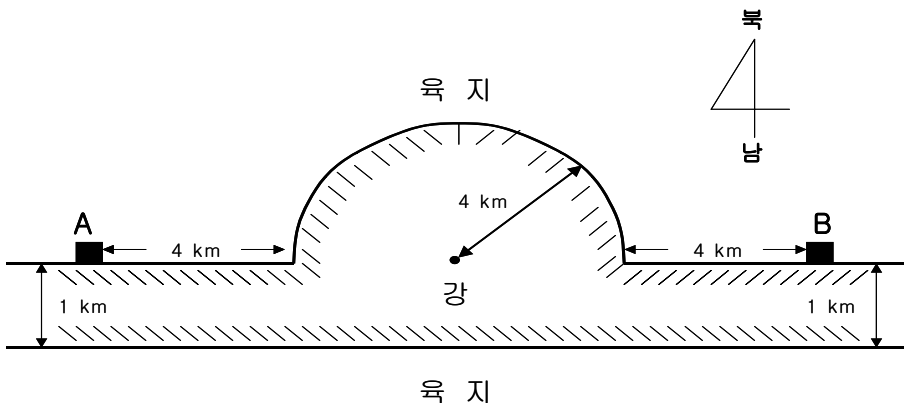
반지름 1인 반구를 평면 위에 얹어놓고, 평면과 반구의 밑면이 60도가 되도록 한 쪽을 들어올렸을 때 생기는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시오.

2. [2001]서울대 컴퓨터공학부

- (1) 평면에서 3개의 직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는 7개이다. 4개의 직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는 몇 개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  $n$ 개의 직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는 몇 개인가?
- (3) 공간에서 3개의 평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의 최대 개수는 8개이다. 4개의 평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몇 개인가?

3. [2005] 중앙대 수시 1학기 자연계

아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방법을 생각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경비행기로 육지 위와 강 위를 비행할 때는 소모되는 에너지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강 위를 비행할 때는, 육지 위를 비행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k$  배가 필요하다고 하자. 다음은 두 지점 A와 B 사이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다. 두 지점 사이에는 반지름이 4 km인 반원 모양의 강변이 있고, 다른 곳은 강폭이 동일하게 1 km이다. 경비행기를 타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려고 한다.

[문제 1] 육지 위로만 비행하여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가장 경제적인 항로를 답안지에 그리고, 이 때의 비행 거리를 측정하시오.

[문제 2] A 지점에서 강 남단을 경유하여 B 지점으로 가려고 할 때, k 값에 따른 가장 경제적인 항로를 답안지에 그리고, 이 때의 비행거리를 측정하시오.

[문제 3] [문제 1]과 [문제 2]에서 구한 항로를 비교할 때, 어느 항로가 더 경제적인지 k 값에 따라 판단하시오.

4. [2001]KAIST

좌표평면 위의 다음 집합은 어떠한 도형을 이루는가?

{(a, b) | 점 (a, b) 를 지나고  $y=x^2$  에 접하는 직선이 두 개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 }

5. [2005]단국대 수시 2학기

직선  $y = \frac{1}{\sqrt{3}}x$  를 원점을 중심으로  $\theta$ 만큼 회전이동하였더니  $y = (2 + \sqrt{3})x$  가 되었다.

탄젠트에 대한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theta$ 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미적분]

6. [2004] 한양대 수시 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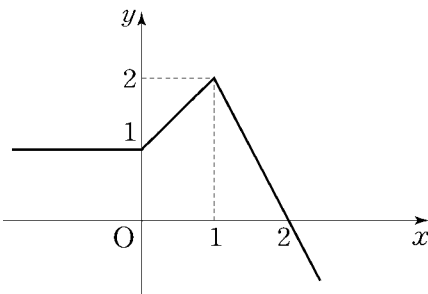
연속함수  $f(x)$ 에 대하여  $a = \int_{-\sqrt{2}}^{\sqrt{2}} f(x) dx$ ,  $b = \int_{-\sqrt{2}}^0 f(x) dx$  라 하자.

함수  $f(x)$ 가  $f(x) = 20x^{19} + 19ax^{18} + 18bx^{17} + 17ax^{16} + 16bx^{15} + \dots + 2bx + a$  를 만족할 때,

$\int_0^{\sqrt{2}} f(x) dx$ 의 실수값을 구하시오.

7. [2003] 서강대 수시 2학기

함수  $g$ 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극한값  $\lim_{h \rightarrow 0} \frac{1}{h} \int_1^{1+2h} g(x) dx$ 를 구하시오.



8. [2003] 포항공대 수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  가 주어져 있다.

- (a)  $f'(1) = 1$ 이고
  - (b) 모든 실수  $x, y$  에 대하여  $f(xy) = f(x)f(y)$ 이 성립한다.
- 함수  $f(x)$ 를  $x$ 의 식으로 표현하여라.

9. [2005] 서울대 정시

1.  $P$ 가  $n$ 차 다항식일 때, 방정식  $P(x) = 0$ 의 근의 개수는  $n$ 보다 클 수 없음을 증명하시오.
2. 다항식  $f_1, f_2, f_3, \dots$  가 다음을 만족한다.

- 가)  $f_1(x) = x$
- 나)  $\frac{d}{dx} f_n(x) = n f_{n-1}(x) \quad (n=2, 3, \dots)$
- 다)  $\int_{-1}^1 f_n(x) dx = 0 \quad (n=1, 2, \dots)$

$f_2, f_3, f_4, f_5$ 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f_2(x) = x^2 - \frac{1}{3}, \quad f_3(x) = x^3 - x, \quad f_4(x) = x^4 - 2x^2 + \frac{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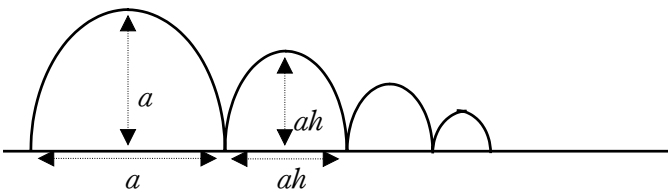
$$f_5(x) = x^5 - \frac{10}{3}x^3 + \frac{7}{3}x$$

- 1)  $f_6(x)$  를 구하시오.
- 2) 방정식  $f_n(x) = 0$ 이 서로 다른  $n$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f_{n-1}(x) = 0$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정확히  $n-1$ 개임을 보이시오.
- 3) 방정식  $f_6(x) = 0$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정확하게 2개임을 보이시오.  
 ※ 참고 :  $7^4 - 5 \cdot 3 \cdot 7^3 + 3^2 \cdot 7^3 - 3^2 \cdot 31 = 64$
- 4) 6 이상인 모든  $n$ 에 대하여 방정식  $f_n(x) = 0$ 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n$ 보다 작게 됨을 증명하시오.

10. [2004] 고대 수시 2학기

최성국 선수가 축구공을 찼더니, 그 공이 최고 높이  $a$ 미터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최성국 선수로부터  $a$ 미터만큼 멀리 떨어졌다가 튀어 오르내리기를 무한히 반복한다. 각 단계에서 공의 궤적은 포물선이며, 공이 튀어 오른 높이와 튀어간 거리는 그 전 단계에서 튀어 오른 높이와 거리의 각가  $h$ 배가 된다. (단,  $h$ 는 0과 1사이의 상수이다.)

- 1) 공과 최성국 선수 사이의 거리가 수렴하는 값을 구하시오.
- 2) 공의 궤적과 지면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대수]

11. [2003] 중앙대 수시 1학기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고무로 된 띠 위를 따라 개미가  $\frac{1}{3} m/\text{분}$ 의 속력으로, 직선으로 기어가고 있다. 최초 띠의 길이는  $1m$ 였고 1분이 지날 때마다 띠의 길이가  $k$ 배씩 늘어난다고 하자. 띠의 한 쪽 끝에서 출발을 한 개미가 결국 띠의 다른 쪽 끝에 도달하려면  $k$ 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여기서  $k$ 는 1보다 큰 유리수이다.

12. [2003] 포항공대 수시 2학기

실수를 원소로 가지는 두 집합  $A$ 와  $B$ 에 대하여 합집합  $A+B$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b \mid a \in A, b \in B\}$$

$A=\{a, b, c, d\}$ 일 때,  $A+A$ 의 원소의 개수가 7이면  $A$ 의 네 원소는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보이시오.

13. [2004] 한양대 수시 1학기

$k, l, m$ 은 모두 정수이고, 행렬  $A = \begin{pmatrix} 9 & k \\ l & m \end{pmatrix}$ 은 행렬  $E =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에 대하여  $A^2 = E$ 를 만족한다. 이러한 행렬  $A$ 의 개수를 구하시오.

14. [2003] KAIST

다음 명제를 증명하시오.

“임의의 자연수  $n$ 과 구간  $[0, 1]$ 에 들어있는  $n$ 개의 실수  $x_1, x_2, \dots, x_n$ 에 대하여 부등식  $(1-x_1)(1-x_2) \cdots (1-x_n) \geq 1-x_1-x_2-\dots-x_n$  이 성립한다.”

15. [2003] 성균관대 수시 2학기

보안 유지를 위하여 받침이 없는 한글을 다음과 같이 전송하려고 한다.

자음 ㄱ, ㄴ, ㄷ, ㄹ, ... 에 순서대로 1, 2, 3, ..., 14를 대응시키고, 모음 ㅏ, ㅑ, ㅓ, ㅕ, ...에 순서대로 1, 2, 3, ..., 10을 대응시킨 다음, 각 낱말을 순서쌍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나’는 (2, 1), ‘너’는 (2, 3)이다. 이제 어떤 낱말을 전송하는 대신에 그 낱말에 대응하는 순서쌍을  $(x, y)$ 라 할 때,  $(x+y, x-y)$ 를 전송한다고 하자. 만일 순서쌍 (5, 3)이 수신되어 왔다고 할 때, 원래 보내려고 한 낱말은 무엇인가?

[확률 · 통계]

16. [2003] 홍익대 수시 1학기

연산  $x\%y$ 를  $x$ 를  $y$ 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한다.

1부터 6까지의 정수가 적혀있는 주사위와, 앞면에는 3, 뒷면에는 5가 적혀있는 동전이 있다. 주사위의 각 눈이 나올 확률이  $\frac{1}{6}$ , 동전의 각 면이 나올 확률이  $\frac{1}{2}$  라고 하자.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타나는 주사위의 눈의 값을  $x$ , 동전의 면의 값을  $y$ 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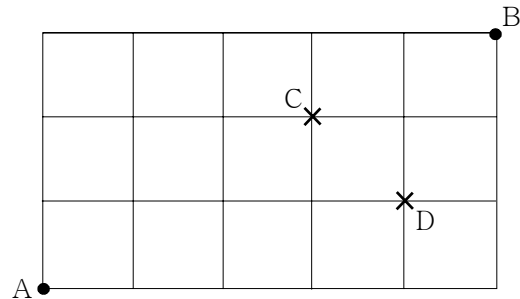
- 1)  $x\%y$ 가 가질 수 있는 값은?
- 2)  $x\%y$ 가 1이 나올 확률은?
- 3)  $x\%y$ 의 기대값은?

17. [2003] 중대 수시

- 1) 동전을 20번 던질 때, 10번 중 앞면이 6번 나오고 뒷면이 4번 나왔다. 11번째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 2) 동전을 100만번 던졌을 때, 앞면이 60만번, 뒷면이 40만번 나왔다. 100만 1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18. [2003] 서강대 수시 2학기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 (a) 점 A를 출발해서 점 B로 가는 최단경로는 몇 가지인가? (이때 점 C와 D는 경로탐색과 무관하다.)
- (b)이동을 할 때, 교차점에서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눈금 이동하고, 뒷면이 나오면 위쪽으로 한 눈금 이동한다. 이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p$ 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q$ 이다. 점 A를 출발점으로 해서 동전을 5번 던진 후, 점 C에 도달할 확률이 점 D에 도달할 확률과 같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p$ 의 값을 구하시오.



## IV-4. 대학별 고사 준비 전략 - 영어 지문



김찬휘

現 데일리 잉글리쉬 ERS 어학원(대치동 소재) 원장  
現 (주) ERS 에듀 대표이사  
現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외국어영역 대표강사  
現 티치미(<http://www.TeachMe.co.kr>) 영어 대표강사  
現 DailyEnglish.com 콘텐츠 디렉터



# 1. 서울대학교

1. 인문계 구술에서 영어 지문이 출제된다.
2. 자연계 수시 구술, 인문계 정시 논술, 자연계 정시 구술에서는 영어 지문이 출제되지 않는다.

## ■ 2004학년도 인문계 수시 면접 구술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가) We historians have a responsibility to historical facts in general, and for criticizing the abuse of history in particular. I need say little about the first of these responsibilities. I would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for two developments. One is the current fashion for novelists to base their plots on recorded reality rather than inventing them, thus fudging the border between historical fact and fiction. The other is the rise of 'postmodernist' intellectual fashions in universities, particularly in departments of literature and anthropology, which imply that all 'facts' claiming objective existence are simply intellectual constructions – in short, that there is no clear difference between fact and fiction. But there is. And for historians, the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is absolutely fundamental. We cannot invent our facts. Either Elvis Presley is dead or he isn't. The question can be answered unambiguously on the basis of evidence, in so far as reliable evidence is available.

\*fudge: 왜곡시키다

(나) 아주 옛적부터 사람들은 끈이나 사슬에 매달린 무거운 돌이 흔들리다가 멈추는 것을 보아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운동을 제약된 落下 운동으로, 즉 무거운 돌이 그 자체의 本性에 의해 높은 位置에서 낮은 位置로 움직여 정지 상태에 이르는 운동으로 보았다. 반면, 갈릴레오는 그것을 동일한 동작이 무한정 되풀이되는 振子 운동으로 보았다. 그러한 시각의 轉換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은 갈릴레오가 돌의 움직임을 더욱 정확하게, 더욱 客觀적으로 觀察한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知覺도 그만큼 정확했다. 제약된 落下 운동을 振子 운동으로 보는 變化는 운동에 대한 理論(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과학자들은 단지 제약된 落下 운동이나 振子 운동을 볼 수 있었을 뿐이며 그보다 더 기초적이고 그들의 理論으로부터 독립된 경험을 할 수는 없었다.

(다) 시종과 함께 길을 가던 기사의 눈에 길 위로 커다란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내 운명이 날 위해 준비해 둔 커다란 행운이 이제야 날 찾아왔구나. 기사의 모험에 대한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나는 오늘 실력을 발휘해서 후세에 영원히 빛나는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저기를 보거라. 저 엄청난 먼지 구름은 바로 수많은 기사와 병사들이 진군하면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니라."

(후략)

[질문 1] 제시문 (가)의 요지를 말한 뒤, 제시문 (가)와 (나)의 관계(일치, 대립, 예시 등)를 설명하십시오.

[질문 2] 제시문 (가)와 (나)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에 나오는 두 인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 2. 고려대학교

1. 인문계, 자연계 공통으로 수시 언어논술에서 긴 영어지문이 출제된다.
2. 논술의 논지를 전개하는 데 있어, 영어 지문의 정확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 2005학년도 수시모집 1 언어논술

(1)

조선 중기에 이르러 향촌에 기반을 둔 사림(士林)이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사림 세력은 강력한 훈구 세력과 대결할 때는 단결하였으나 훈구 세력이 무너진 뒤에는 자체 분열하여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봉당을 형성하였고, 봉당 간에 치열한 정권 다툼이 벌어졌다. 소위 당쟁(黨爭)이라고 불리는 봉당 간의 권력 투쟁은 여러 차례의 사화(士禍)와 같은 정치적 혼란과 폐해를 낳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봉당 경쟁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구양수(歐陽脩)는,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봉당을 이루는 소인과는 달리 군자는 도를 추구하기 위하여 봉당을 이룬다고 하였다. 본래 봉당이란 성리학에서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덕을 닦은 연후에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공도(公道)를 실현하려는 정치집단이였다. 왕권의 전횡을 막고 신진 세력의 등용과 정치권력의 상호 견제 기능을 담당하였던 봉당정치는, 한정된 관직을 놓고 경쟁하던 당시의 현실에서 의미 있는 정치 형태였다. 그래서 윤휴(尹鑄)는 “봉당은 족히 천하를 어지럽게 하지 만, 봉당을 싫어하여 없애버리면 천하를 망하게 하는데 이른다”고 하였다. 양반계급이 추구하는 권력, 지위, 명예 등 한정된 가치의 재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봉당정치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2)

Most countries are populated by several distinct ethnic groups, and as many as half of all countries have experienced substantial conflict among such groups. Ethnic differences ar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large-scale conflict within states, and they often cause wars between countries as well. Harmonious ethnic relationships are thus critical elements in achieving and maintaining social peace in most parts of the world. But the issue of creating a national identity that can unite peoples who think of themselves as members of different ethnic groups remains a burning question. Let's consider South Africa as an example. In 1994, the minority white government ended its policy of apartheid (racial separation) and yielded political power to the black majority under the leadership of Nelson Mandela and the formerly banned 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But black South Africans themselves often experience conflicts derived from differing tribal identitie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numerous episodes of conflict and violence between the larger tribal populations, such as the Zulus, and the members of the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

(3)

As new religious groups emerge, it is common that tensions exist between them and the wider society. They not only exist outside the mainstream of society but also provoke resistance from it. New religious groups think old ways of doing things are at best obsolete, at worst evil. The very reason for their existence is to call into question the status quo. They defy conventional rules and question conventional

authorities.

One such example of a new religious group coming into conflict with the mainstream society is Christian Science.\*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s Christian Science's belief in the healing power of faith, which has prompted its followers to refuse conventional medical treatment of their children for treatable diseases. What makes such conflict profound is not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s” of the parents and the “interests” of society; rather, conflicting principles are at stake. Since Christian Scientists dispute the distinction of mind and matter that is prevalent in medical science, they argue that even routine diagnosis may “cause” a disease to occur. More problematic is the fact that the recognition of the medical “facts” of disease amounts to the refutation of the moral beliefs of Christian Science.

\*Christian Science: 크리스천 사이언스

(4)

Never in recorded history has there been a time when conflict didn't exist. The most violent form of conflict—war—refers to organized armed violence aimed at a social group in pursuit of an objective. Wars have existed throughout human history and continue in the contemporary world.

However, war is said to be partially responsible for creating the advanced civilization in which we live. Before large political states existed, people lived in small groups and villages. War broke the barriers of autonomy between local groups and permitted small villages to be incorporated into larger political units known as chiefdoms.\* Centuries of warfare between chiefdoms culmin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The creation of the state in turn led to other profound social and cultural changes. Once the state emerged, the gates were flung open to enormous cultural advances, advances undreamed of during a regimen of small autonomous villages. Only in large political units was it possible for great advances to be made in the arts and sciences, in economy and technology, and indeed in every field of culture central to the great industrial civilizations of the world.

Thus war, in a sense, gave rise to the state. Interestingly,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reduced the amount of lethal conflict (i.e., death through war, execution, homicide, or rebellion) in a society by providing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chiefdom: 군장사회(君長社會)

<인문계 문제>

I. 제시문 (1), (2), (3), (4)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50점)

II. 네 개의 제시문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입니다. 각 제시문의 관계를 밝히고,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50점)

<자연계 문제>

I. 제시문 (1), (2), (3), (4)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각각 110140자, 각 20점)

II. 네 제시문의 공통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띄어쓰기 포함 110140자, 20점)

### 3. 한양대학교

- 1. 수시는 인문계의 경우만 영어 지문이 출제된다.
- 2. 수시의 경우는 과거 본고사 유형의 영어 지필고사가 치러진다.
- 3. 정시는 인문계, 공과대, 건축대 등 소위 일부 인기학부에서 치러지는 논술에 영어지문이 등장한다.

#### ■ 2004학년도 인문계 수시1 심층면접

Experts of every kind - politicians, doctors, teachers - are constantly saying that television is bad for children. They argue that television repeatedly teaches the "wrong" values to children. They blame it especially for violent behavior. In fact, children who watch TV more than three hours dail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aggressive behavior as adults. According to one research, those who watched television more than three hours a day were much ( A ) likely than those who watched it ( B ) than one hour a day to commit subsequent acts of aggression against other people. The aggressive acts include assaults, fights that sometimes lead to injuries, use of a weapon to commit a crime and other serious behaviors.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the average hour of television viewing has four to five acts of violence. Even children's programs, such as cartoons, include average 20 to 25 violent acts every hour. One researcher says, "If you add it up, the average child, with those statistics, will have seen 100,000 acts of violence and 8,000 murders on television by the time they leave elementary school."

However, there are people who strongly claim that television is not necessarily bad. They also insist that violent TV programs do not directly influence children's behaviors. They further argue that the reverse may be true: a violent personality comes first, and it leads to a taste for violent programs, which merely trigger the actions. American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elevision is responsible for both violent behavior and fear of crime, but America is a much more violent society than Britain, which has more violence on television, and far fewer programs made specifically for children. Just as programs featuring kindness and unselfishness cannot compensate for growing up in a brutal and violent household, ( C ) can violent programs override decency and good manners in a household in which these attributes are constantly valued and practiced.

- 1. 빈 칸 ( A )와 ( B )에 들어갈 표현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less - less                      Ⓑ more - more                      Ⓒ more - less                      Ⓓ less - more
- 2. 밑줄 친 the actions가 가리키는 것은?  
Ⓐ violent programs                      Ⓑ violent behaviors                      Ⓒ violent personalities                      Ⓓ violent claims
- 3. 빈 칸 ( C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은?  
Ⓐ so                      Ⓑ then                      Ⓒ only                      Ⓓ neither
- 4. 글의 내용상, 더욱 폭력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와,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더 많이 내보내는 나라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미국 - 영국                      Ⓑ 영국 - 미국                      Ⓒ 미국 - 미국                      Ⓓ 영국 - 영국

5. 위 글의 두 번째 단락의 주장을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violent program→violent personality→violent behavior
- ㉡ violent program→violent personality→violent behavior
- ㉢ violent personality→violent program→violent behavior
- ㉣ violent behavior→violent program→violent personality
- ㉤ violent program→violent behavior→violent personality

■ 2004학년도 정시(‘가군) 논술 - 인문계, 공과대, 건축대

◆ 지문 (가)는 최근의 사회문제에 관한 글이다. 지문 (나)의 관점에 따라 지문 (가)에 제시된 사례들의 원인을 분석한 후, 지문 (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한계를 비판하시오.

(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번한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자살 건수는 1만 3055건으로 2001년의 1만 2277건에 비해 6.3% 늘었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셈이다. 최근 몇 년 사이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1만 1713건, 2000년 1만 1794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연령과 계층의 분포도 과거와 다르다. 10대의 자살은 1998년에 이미 10만 명당 6.2명으로 이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둘째를 차지한다. 또한 기업 총수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자살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의 자살 사이트도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81개였던 국내 자살 사이트 가운데 50개 가량은 스스로 폐쇄했고 10여 개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쇄했지만, 자살 사이트는 음성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무작위로 추출된 수도권 지역 중고생 912명 중 8%가 자살 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남학생 7%, 여학생 3.5%가 검색 뒤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최근에 발생한 몇몇 자살 사례는 자살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최근 여대생 2명이 극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죽기 불과 닷새 전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죽기 전날 밤 처음 만나 민박집에서 극약을 탄 소주를 함께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한 가장은 카드빚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가족을 동반하고 자살하였다. 이 가장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그대로 호수로 돌진하였다. 한 회사원은 회사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모두 잃고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농민 운동가는 WTO 협상을 반대하며 시위 도중 자신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1만 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WTO 각료회의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살하였다.

(나) Durkheim, a French sociologis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ocial facts in investigating suicide rates. Social facts here are understood as 'every way of acting capable of exercising an external constraint on the individual'. They are 'external' to the individual in the following two senses. Firstly, every man is born into an on-going society which already has a definite organization or structure, and which conditions his own personality. Secondly, social facts are 'external' to the individual in the sense that any one individual is only a single element within the totality of relationships which constitutes a society. These relationships are not the creation of any single individual, but are constituted of multiple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and social integration\*, a notable social fact: Suicide varies in

inverse ratio\* to the degree of integration of the social groups of which the individual forms a part. Thus this type of suicide may be called 'egoistic', and it results from a state where 'the individual self asserts itself to excess in the face of the social self and at its expense'.

A second type of suicide springs from an anomic state of moral deregulation. Suicide rates increase markedly in times of economic depression; they also, however, increase to an equivalent degree in times of marked economic prosperity. Both sudden upward and downward changes in the economic cycle have an unsettling effect upon accustomed modes of life and can lead to an 'anomic suicide'.

The third type, 'altruistic\* suicide', has two sorts: 'obligatory' and 'optional'.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n traditional societies, an individual kills himself because he has an obligation to do so. It is called an obligatory suicide. Optional suicide is often associated in modern societies with the furtherance of definite codes of honor and prestige. Both kinds rest upon the existence of a strong collective value.

\* integration: 통합 \* in inverse ratio: 반비례하여 \* altruistic: 이타적

(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올 수 없는 법, 할 수 없으니 이 자식이나 잘 키워 내리라.' 하고 어린아이 있는 집을 차례로 물어 동냥젓을 얻어 먹일 적에, 눈 어두워 보든 못하고 귀는 밝아 눈치로 가늠하고 앉았다가, 마침 날이 들 적에 우물가에서 들리는 소리 얼른 듣고 나서면서, "여보시오 마누라님, 여보 아씨님네, 이 자식 젓을 좀 먹여주오. 나를 본들 어찌 그리하며, 우리 마누라 살았을 제 인심으로 생각한들 차마 어찌 괘시하며, 어미 없는 어린 것인들 아니 불쌍하오. 댁 집의 귀하신 아기 먹이고 남은 젓 한 통 먹여주시오." 하니, 뉘 아니 먹여주리. 육칠 월 김매는 여인 설 참 찾아가서 애근하게 얻어 먹이고, 또 시냇가에 빨래하는 데도 찾아가면 어떤 부인은 달래다가 따뜻이 먹여주며 훗날도 찾아오라 하고, 또 어떤 여인은 말하되, "이제 막 우리 아기 먹였더니 젓이 없노라." 하여, 심청이 젓을 많이 얻어 먹인 후에 아이 배가 불룩한즉 심봉사 좋아라고 양지바른 언덕 밑에 쪼그려 앉아 아기를 열렀다.



## 4. 서강대학교

1. 인문계, 자연계 모두 수시 심층면접에서 영어가 출제된다.
2. 큰소리로 읽어라. 한국말로 해석하라. 단어의 뜻을 밝혀라 등 독특한 유형을 띠고 있다.
3. 인문계와 자연계의 영어 지문은 각각 문이과의 특성을 살린 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4. 정시 인문계 논술에서는 영어 지문은 출제되지 않는다.

### ■ 2004학년도 인문계 수시2 심층면접

The clock can be considered the key invention of the Machine Age, for its influence on technology and on the habits of people. ① It can be argued that the clock was the first truly automatic machine that attained any importance in human life. Before its invention, the few machines that people used depended on some external and unreliable force such as human or animal muscles, water, or wind.

The clock was the first machine that attained widespread public importance and it soon came to serve a vital social function. Through clock-making humanity learned the elements of machine-making in general and gained the technical skills needed to produce the complicated machinery that emerge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Socially the clock had a greater influence than any other machine. It was the means by which the strict regulation of life necessary for a system of industry employing hundreds of workers could best be assured.

Now the movement of the clock imposes its rhythm on people's lives. We have become the slaves of a concept of time which we ourselves have made. In a truly sane and free society such an arbitrary\* domination of humanity by the clock or any other machine would obviously be out of the question. ② The domination of humanity by machines is even more unacceptable than the domination of one person by another. We should return to a more balanced and humane view of life no longer dominated by the worship of the clock.

\*arbitrary : 독단적인

1. 이 글의 핵심 주제를 말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시오.
2. 네모상자 안에 있는 단락을 큰 소리로 읽으시오.
3. 밑줄 친 문장 ① ②를 해석하시오.

■ 2004학년도 자연계 수시2 심층면접

The waves on the surface of the ocean all start out in the same way: with wind. Picture the ocean as a calm, flat surface. As winds blow over the water, tiny waves are born -- just like the ripples that streak across your coffee when you blow on it to cool it down. The baby waves move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wind, and if the wind is strong enough -- faster than about two miles per hour -- they'll form into stable waves that travel along with the wind.

① It is the shape of the wave and not any individual water molecule that progresses across the sea. The water molecules move up and down with each wave, then return more or less to their original position. The height of a wind-generated wave from the peak to the bottom is determined by the speed of the wind, how long the wind has blown in the same direction, and the width of the open water over which it is blowing.

② Waves travel with little change across the vast expanses of the open ocean, but eventually all waves must reach shore. As they approach land and the sea gets shallower, the sea floor causes the waves to slow down while increasing in height. Finally the front of the wave collapses\* as surf.

1. 이 글의 핵심 주제를 말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시오.
2. 네모상자 안에 있는 단락을 큰 소리로 읽으시오.
3. 밑줄 친 문장 ① ②를 해석하시오.

## 5. 중앙대학교

1. 인문계, 자연계 모두 “학업적성논술”이라는 이름 아래, 수시에서 사실상 국영수 본고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2. 인문계와 자연계의 지문 성격이 다르다.
3. 수시 면접은 말 그대로 단답형의 문답으로 영어 지문은 제시되지 않는다.

### ■ 2005학년도 인문계 수시1 학업적성논술 中 영어 문제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In our society, if people take their time for reflecting on the routine of daily life, they come to realize that the degradation of everyday work makes skill and competence increasingly irrelevant to material success and thus leads people to consider themselves as commodities. The degradation discourages commitment to the job and drives people, as the only alternative to boredom and despair, to view work with self-critical detachment. When jobs consist of little more than meaningless motions, and when social routines, formerly dignified as ritual, degenerate into role playing, the workers seek to escape from the resulting sense of uncertainty by creating an ironic distance from his daily routine. If he is asked to perform a disagreeable task, he makes it clear that he doesn't believe in the organization's objectives of increased efficiency and greater output. If he goes to a party, he shows by his actions that it's all a game--false, artificial, insincere; a grotesque travesty \* of sociability. In this way he attempts to make himself invulnerable to the pressures of the situation.

Meanwhile, as more and more people find themselves working at jobs that are in fact beneath their abilities, as leisure and sociability themselves take on the qualities of work, the posture of cynical detachment becomes the dominant style of everyday life. Many forms of popular art appeal to this sense of knowingness and thereby reinforce it. They often parody familiar roles and themes, inviting the audience to consider itself superior to its surroundings. Yet much popular art remains romantic and escapist, promising escape from routine instead of ironic detachment from it. Advertising and popular romance dazzle their audience with visions of rich experience and adventure. They promise not cynical detachment but a piece of the action, a part in the drama instead of cynical spectatorship.

While people are forced to take jobs that insult their intelligence in modern industry, the mass culture of romantic escape fills their heads with visions of experience beyond their means--beyond their emotional and imaginative capacities as well--and thus contributes to a further devaluation of routine. The disparity between romance and reality, between the world of the beautiful people and the workaday world, dulls pain but also cripples the will to change social conditions, to make even modest improvements in work and play, and to restore meaning and dignity to everyday life.

\* travesty: 희화화, 서투른 모방

[문제 1] 위 글에 나오는 자기 직업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를 요약하시오. (75~100자, 답안지 3~4줄) (10점)

[문제 2] 위 글에서 지적하는 대중 문화의 작용 두 가지를 기술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75~200자, 답안지 7~8줄) (20점)

■ 2005학년도 자연계 수시1 학업적성논술 中 영어 문제

II.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우리말로 답하시오. (30점)

(A)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 scientific application of computers that has aroused considerable controversy on both a social and a philosophical level. To begin with, there is no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 of the term or its objectives. Definitions range from modest descriptions of scientific applications to very broad statements about its use and its potential.

Some experts describ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narrowly focused field that has as its prime objective the programming of computers in such a fashion that they appear to make “intelligent” decisions. The purpose of this application is to enable computers to make complex decisions and to perform problem-solving tasks. If a machine can be programmed to do reasonably well at some predefined task, it will be said to display “intelligence.”

Other propon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lieve that the value of AI goes beyond its practical ability to enable machines to function as if they had intelligence. These experts claim that AI techniques and discoveries will be of considerable value to students of psychology. The AI supporters believe that the goals of AI and of the psychological sciences in general are the same: to understand intelligent processes. For them, AI techniques provide researcher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human mind and how one thinks.

Thus there are, broadly stated, two categories of AI proponents. One group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computers for problem-solving functions, the other focuses on the use of computers as problem-solving tools for the primary purpose of providing greater insight into human thought processes.

The direction of AI research is, of course, integrally related to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ers. There are scientists who focus on AI techniques and on enhancing the computer's ability to perform certain tasks. For example, chess-playing programs have been written by AI experts to demonstrate the ability of machines to make complex decisions. Similarly, other game-playing programs have been designed to demonstrate the ways in which machines can be programmed to display intelligence. These game-playing tasks can serve as entertainment, can be used to challenge a human opponent's mental acuity, or can simply demonstrate the level of complexity and sophistication that may be programmed into a machine.

The applications that are undertaken by both types of AI researchers are similar; the controversy surrounding AI applications is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ultimate purpose of the application, not to the work itself.

[문제1] 지문 (A)에 나타난 인공지능의 연구 목적은 무엇인지 답안지 5줄(101 ~ 125자)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문제2] 지문 (B)의 저자는 인공지능 연구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지문 (A)와 비교하여 답안지 8줄 (176~200자) 분량으로 논의하시오. (10점)

(B) Since psychologists themselves have not yet agreed on a definition of "intelligence," it is somewhat premature to investigate ways of producing an artificial form of that intelligence. Some psychologists use IQ (Intelligence Quotient) as a measure of human intelligence. Others claim that human intelligence is not easily quantifiable; judgment, intuition, and creativity are aspects of intelligence that are exceedingly difficult to measure. Hence without an agreement among psychologists as to the definition of intelligence, atten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may well be misguided.

[문제3] 지문 (A)에 근거하여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개념정의를 답안지 3줄 (51~75자) 분량으로 기술하시오. (10점)



## 6. 성균관대학교

1. 수시 인문계, 수시 자연계, 정시 인문계 논술 모두 단위에서 긴 영어 지문이 출제된다.
2. 인문계, 자연계의 지문 성격이 다르다.
3. 2006학년도부터 SKAT(BMAT)라는 이름으로 전공적성평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 ■ 2005학년도 인문계 수시1 논술

- I.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단, 요약내용은 답안지 제 1면을 전부 사용하여 기술하시오.
- II. 아래 4개의 <제시문>에 나타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단, 각 <제시문>을 논거로 충분히 활용하고, 3개의 <표>를 모두 인용하시오.

#### 제시문 1

Considering modern societies'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it is surprising how little attention is paid in public debate and political discourse to the question of whether more economic growth actually increases well-being. Perhaps this avoidance is convenient for those who have a stake in the prevailing system: if growth does not improve well-being, many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s of advanced capitalism cannot be justified. Perhaps ordinary people too have a stake in ignoring the evidence on growth's effects on well-being. When people are persuaded that more income will make them happier, they typically react to the disappointment that follows the attainment of that income by concluding that they simply do not have enough. That is a cycle without end - hope followed by disappointment followed by hope - unless some event or sudden realization breaks it.

In fact, there is now a large body of evidence that casts serious doubt on the dual assumptions that more economic growth improves social well-being and that more income improves individual well-being. It is a body of evidence systematically ignored by policy makers and most economists, yet it is consistent with folk knowledge, accumulated through the ages, that money cannot buy a happy life. Not only does the evidence cast doubt on the growth assumption; it also points to the factors that do contribute to individual and social well-being.

We know that there is a general assumption that increasing people's incomes will make them happier and that as a result increasing the rate of economic growth is vitally important. But the question, even in economic terms, is much more complex. If rising incomes result in increasing happiness then we would expect three relationships to hold:

- People in richer countries will be happier than people in poorer countries.
- Within each country, rich people will be happier than poor people.
- As people become richer they will also become happier.

Some evidence suggest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For example, within Asia, residents of wealthy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aiwan regularly report the highest proportion of unhappy people, while the countries with the lowest incomes, such as the Philippines, report the highest number of happy people.

**제시문 2**

If present trends continue, the world in 2000 will be more crowded, more polluted, less stable ecologically, and more vulnerable to disruption than the world we live in now. Serious stresses involving population, resources, and environment are clearly visible ahead. Despite greater material output, the world's people will be poorer in many ways than they are today.

Progress The Global 2000 Report to the President of the U.S. : Entering the 21st Century (Barney 1980)

This neo-Malthusian vision of the future stands in sharp contrast to the conclusions in The State of the Humanity edited by Julian Simon (1995). That monumental collection of fifty-eight chapters by more than fifty scholars documents the tremendous strides that have been made in human well-being over the centuries, as well as trends in natural resource use and environmental quality. Based on these discussions, Simon wrote: "Our species is better off in just about every measurable material way".

Bjørn Lomborg, determined to prove Julian Simon wrong and to verify the doomsday-visions of the kind that permeated The Global 2000 Report, enlisted ten of his "sharpest students" to comb through the empirical data on long-term temporal trends in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Much to his surprise, they found that although the population continues to grow, albeit at a decelerating pace, the state of humanity has never been better, that the average person on the globe has never been less hungry, better educated, richer, healthier, and longer-lived than today. No less important, not only is human well-being advancing but, in many cases, so seems to be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especially in the rich countries of the world.

Lomborg focused mainly on temporal trends in a variety of indicators rather than on how those indicators might vary with wealth or per capita income across countries and regions. He also looked at temporal trends in infant mortality and life expectancy for various income groups and these data suggest that richer groups are better off.

**제시문 3**

\*항산(恒産)이 없으면서도 \*항심(恒心)을 지니는 일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합니다. 백성의 경우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습니다. (후략)

**제시문 4**

스웨덴의 언어학도 헬레나는 젊은 날 배낭 하나 둘러메고 북인도 라다크를 찾는다. (후략)

■ 2005학년도 자연계 수시1 논술

다음의 제시문들을 참조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제시문 I: 문제 1

A fatal encounter between a brown bear and a migrating salmon in a glacial stream in Alaska. What brought these animals together at this particular moment? The bear's acute sense of smell helped it find the stream. The fish seem to navigate to the mouth of their home river system by using the angle of the sun for reference. Once there, however, their sense of smell takes over. The water that flows from each stream into a river seems to carry a unique scent, a mixture of chemicals from the plants and soils in the area. The scent of its home stream apparently becomes fixed in the memory of a young salmon before it migrates to the sea. When a mature salmon arrives in the vicinity of its home river system, it swims along the coast until it detects the faint odors matching the scent memory in its brain. Sensory information gathered by sensory receptors and processed by the brain guide salmon and brown bears to specific stream site.

A sensory receptor cell responds to a group of chemically related molecules, not just to one kind of molecule. In the nose, for example, each type of receptor cell may detect one of about fifty general types of odor. A particular odor triggers a specific level of stimulation in the receptor cells.

When you smell an odor, molecules have entered your nose, dissolved in the mucus, and bound to receptor molecules on the cilia. Proteins, found in the olfactory mucus, have recently been discovered that bind to odorants. These have been termed the Odorant Binding Proteins (OBPs). Odorants dissolve in the aqueous/lipid environment of the mucus and then bind to an OBP. These proteins facilitate the transfer of odorants across the mucus layer to the receptors, and also increase the concentration of the odorants in the layer, relative to air. OBPs have another role as a terminator, causing "used" odorants to be taken away for degradation, allowing another molecule to interact with the receptor. The protein could also be acting as a kind of protector for the receptor, preventing excessive amounts of odorant from reaching the receptor. The binding of OBP-odorant complex to receptor triggers receptor potentials, which alter the rate of action potentials passing into the brain. Integration of the signals in the brain results in an odor perception.

(어휘모음)

cilia: 섬모, lipid: 지질, 지방질, mucus: 점액, odor: 냄새, odorant: 냄새가 나는 것,  
olfactory: 후각의, receptor: 수용체, salmon: 연어, trigger: 일으키다, 유발하다.

[문제 1]

문제 1-1. 연어가 강 하구로부터 태어난 곳으로 회귀할 때 어떤 생물학적 감각을 사용하는지 답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방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답안은 가정, 실험방법, 결과 그리고 해석 순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시오. (30점)

문제 1-2. 만약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제시문을 근거로 하여 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생물학적 결함을 두 가지 쓰시오. (10점)



## 7. 경희대학교

1. 인·적성 시험, 수시 논술, 정시 논술 모두 단위에서 인문계, 자연계 모두 영어지문이 출제된다.
2. 인문계, 자연계의 지문 성격이 다르다.

### ■ 2005학년도 인·적성 시험 中

18. doctor : patient =

- ① musician : composer    ② teacher : student    ③ actor : director  
 ④ customer : merchant    ⑤ passenger : captain

※ 주어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 is older than M, but he is younger than Q.

T is older than S, and he is also older than Q.

P is older than M, but he is shorter than Q.

19. If the statements above are true, who is oldest?

- ① S    ② Q    ③ T    ④ P    ⑤ M

20. The relation between \_\_\_\_\_ cannot be inferred from the given conditions?

- ① T and M    ② S and P    ③ M and Q    ④ T and Q    ⑤ T and P

※ 주어진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 "In recent years it has become clear that man's use of fossil fuels is likely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world's climate."

Q: What will be the major impact on the world's climate?

- ① man    ② using fossil fuels    ③ recent years    ④ use of fossil    ⑤ nothing

22. Primary Premise: Everything that lives, moves

Secondary Premise: No mountain moves.

- ① Everything moves.    ② Everything lives.    ③ No mountain lives.  
 ④ Mountains move.    ⑤ None of above.

35. Read the following passage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

There will be a one-day international conference at Kyung Hee University. The conference will include two lectures by Prof. Kim and Prof. Lee from Kyung Hee university, and three lectures by Prof. Sag, Prof. Yang, and Prof. Zen from other universities. The conference schedule should follow the following restrictions: (a) Morning sessions must include only one professor from Kyung Hee University. (b) Prof Sag's lecture must be immediately after lunch. (c) Prof. Kim's lecture must precede Prof. Zen's lecture.

Q: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 an acceptable conference schedule?

- ① Kim, Lee, Lunch, Sag, Yang, Zen    ② Yang, Kim, Lunch, Sag, Lee, Zen
- ③ Lee, Yang, Lunch, Sag, Zen, Kim    ④ Zen, Kim, Sag, Lunch, Lee, Yang
- ⑤ Kim, Sag, Lunch, Lee, Zen, Yang

■ 2005학년도 자연계 수시 2 논술

<문제>

- 1. 제시문 [가]에서 언급된 내용에 근거하여 세균의 내성을 일으키는 요인과 내성이 발달하여 확산되는 가능한 경로를 200자 이내로 논술하십시오.
- 2. 제시문 [나]에서 언급된 내용에 근거하여 세균의 내성을 일으키는 요인과 내성이 발달하여 확산되는 경로를 200자 이내로 논술하십시오.
- 3. 항생제 내성 세균에 의한 감염과 질병의 확산을 감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료 종사자, 대중과 공공기구에 제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5가지로 열거하여 800자 이내로 논술하십시오.

<제시문>

[가] The ability of microorganisms to become resistant to the major therapies used against them has long been recognized and is becoming increasingly apparent. Resistance rates for many isolates are rising but are highly variable. For example, the proportion of isolates of *Staphylococcus aureus* resistant to methicillin increased from close to zero 10-15 years ago to approximately 70% i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40% in Belgium, 30% in the United Kingdom, and 28% in the USA by 1998.

Increasing antimicrobial resistance(AMR) presents a major threat to public health because it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antimicrobial treatment, leading to increased mortality and health care expenditure. For example, the mortality rate in outbreaks involving resistant strains of *Salmonella* spp. was found to be 3.4%, whereas it was only 0.2% in those involving sensitive strains. In 1995 the cost of containing an outbreak of infection caused by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 a district general hospital in the United Kingdom was estimated to exceed US\$ 560,000.

The rate of development of AMR is accelerated by the use and misuse of antimicrobials. The

factors responsible include over-the-counter availability of antimicrobials without professional controls, the use of drugs of low potency and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poor manufacture or counterfeiting, and the availability of drugs from roadside stalls and hawkers who have little or no knowledge of dosage regimens, indications or contraindications.

Containment of AMR thus requires a range of strategies. AMR is a global problem. Globalization increases the vulnerability of countries to imported diseases, and infectious diseases travel faster and further than ever before. No country acting on its own can adequately protect the health of its population against AMR. International collective action is essential, yet responsibility for health remains predominantly national.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80)

[나] In 1996,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genetically modified plants were beginning to make the news. All of these safety concerns were, and still are hypothetical, but they were being taken seriously, especially in Europe. One of these concerns was that antibiotic resistance marker genes introduced on cloning vectors into the plants along with the gene of interest might somehow be released from the plant during digestion and enter intestinal bacteria of humans and animals. Although this is extremely unlikely to occur and would not be medically significant if it did, European opponents of plant biotechnology prompted this possibility as a serious concern. Ironically, their preoccupation with this issue may have contributed indirectly to another regulatory decision that may have serious future health consequences.

During the antibiotechnology hysteria, with virtually no debate and no media attention, the European Union approved the use of an antibiotic called avoparcin as a growth promoter for chickens and pigs. Avoparcin is a glycopeptide that cross-selects for resistance to vancomycin. What happened next was not surprising. Vancomycin-resistant strains of *Enterococcus faecium* (VRE) began to appear in animal intestines and were then isolated from the unpasteurized cheeses, smoked meat products, and other products that were being offered for sale in food stores.

The question then arose as to whether the animal strains of VRE could colonize the human intestine. Or, if not, could they transfer their vancomycin resistance genes to human enterococci? Reports of isolation of VRE from the intestines of urban Europeans suggested that one or the other of these outcomes was in fact possible. VRE, unlike the classical food-borne pathogens, does not cause immediate intestinal disease. People colonized with VRE, however, are at increased risk for developing a serious and difficult-to-treat postsurgical infection if they have to have surgery. How high this risk actually is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debate, but at least this risk is a real one. (Emerg. Infect. Dis. 1999:5)

[주]

[가]

- 1) isolates: 분리균
- 2) *Staphylococcus aureus*: 포도상 구균
- 3) mortality: 죽을 운명
- 4) over-the-counter: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매매되는 의약품

- 5) hawker: 행상인
- 6) regimen: 양생법
- 7) contraindication: 병을 악화시키는 약이나 치료 방법
- 8) vulnerability: 취약성

[나]

- 1) vector: 매개체
- 2) intestine: 장
- 3) preoccupation: 편견
- 4) hysteria: 감정 폭발
- 5) promoter: 촉진물
- 6) glycopeptide: 당단백질
- 7) unpasteurized: 살균처리 하지 않은
- 8) enterococci: Enterococcus의 복수형
- 9) food-borne: 음식물에 오염된
- 10) pathogen: 병원균



### ■ 2005학년도 정시 논술

<문제>

다음 제시문 [A], [B]는 인류 문명의 역사에 관하여 각각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간략히 비교 분석하고, 그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여 인류의 미래를 전망해 보시오.

< 제시문 >

[A]

탈냉전 세계에서 문화는 분열과 통합의 양면으로 위력을 발휘한다. 문화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던 민족이 다시 뭉치고 있다. 이념이나 역사적 상황으로는 통합되어 있지만 이질적 문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회는 소련,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처럼 다시 갈라지거나,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수단, 인도, 스리랑카처럼 극심한 긴장을 겪고 있다. 문화적으로 비슷한 나라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협력한다. 유럽 연합처럼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국가들에 토대를 둔 국제 기구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국제 기구보다 훨씬 원활하게 굴러간다. (후략)

[B]

In one decade, the 1430s, characterized by a majority of severe winters in much of Europe, the summers setting examples of both extremes of temperature and rainfall, we find the Scottish Highlands and Bohemia in civil turmoil, the capital of Scotland moved south for greater security to Edinburgh, a particularly savage phase of the Hundred Years War between England and France, and the collapse of a

period of Chinese expansion on land and sea under the Ming dynasty\* because of internal troubles. And, over the time between the late thirteenth century and the fifteenth, the cultural(and in some senses the political) capital of northern Europe moved south in successive stages from Trondheim to Bergen to Oslo and thence to Copenhagen. Finally, in 1536 Norway ceased to exist as a separate country Iceland was also subjected to more and more absolute rule from Copenhagen. In 1707 alike move ended the independence of Scotland, which was absorbed in the United Kingdom and ruled from London.

And if we look at the history of the Far East, the time of drought around AD 300 in central Asia coincided with conflict there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the Tsin dynasty\* in northern China by invading nomads. Refugees poured into south China and contributed to the cultural development there, while others fleeing to Korea and western Japan figure prominently in the peopling of those countries. Something like this history was repeated with the Manchu\* invasion of China, ending the Ming dynasty in 1662 in the midst of one of the severest parts of the Little Ice Age\* period.

In our survey of the past we can notice a number of cases where climate exercised a compulsion on human affairs. The great rise of world sea level progressing over thousands of years, which followed the ending of the last ice age and submerged formerly inhabited lowlands and coastal plains, is one example. The later drying up of the north African, Arabian, north-west Indian and central Asian deserts ended the human activities and cultures there and must have caused at first famines and ultimately alike shift of populations.

< 주 >

- |                  |          |
|------------------|----------|
| * Ming dynasty   | 명(明) 왕조  |
| * Tsin dynasty   | 진(秦) 왕조  |
| * Manchu         | 만주족      |
| * Little Ice Age | 소빙기(小氷期) |